

August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5 08 vol.284



Cover Story

기획공연 2015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반갑습니다 부산시립합창단 신임 수석지휘자 전상철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젊은 건축가의 발칙함 - 김해 진영음의 '흙담'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Bⁿ 비엔그룹·대선주조와 함께하는

제8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2015. 9. 12. SAT.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 차이콥스키 발레모음곡 '백조의 호수' 중 <정경>
P. I. TCHAIKOVSKY <SCENE> FROM BALLET SUITE 'THE SWAN LAKE' Op.20
-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35
P. I. TCHAIKOVSKY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모음곡 작품59
R. STRAUSS DER ROSENKAVALIER Op.59

주 최  **KNN** **Bⁿ** 비엔그룹 후 원 **Bⁿ** 대선주조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Bⁿ BIP
비아이피(주)

Bⁿ STEELA
비엔스틸라(주)

Bⁿ COSMO
(주)코스모

Bⁿ SNB
에스엔비(주)

Bⁿ BIPEX
(주)바이펙스

Bⁿ FURNITURE
비엔가구(주)

Bⁿ BISCO
(주)비스코

Bⁿ AISCO
아이스코(주)

협연
신지 아바이올린

예술감독
오충근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ⁿ 비엔그룹 · **Ci클루르즈** 는
예술을 사랑하며 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 지역출신 예술가를 적극 후원합니다.



문의 **KNN** 1800-2575

예매 **INTERPARK** 1544-1555

티켓 VIP석 10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Bⁿ STEEL
비엔철강(주)

Bⁿ CHEMICAL
비엔케미칼(주)

Bⁿ DAESUN
대선주조(주)

Bⁿ BAUM
바움크리에이티브(주)

Bⁿ BIP-WEIHAI
부일방화판재유한공사(중국)

Bⁿ USA
BN USA, Inc.

BK INVESTMENT
비케이 인베스트먼트(주)

창작오페라

해운대 극장

불멸의 사랑

2015.
09.03 Thu ~ 04 Fri
19:30

09.05 Sat
1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제작 해운대문화회관 주최 / 주관 해운대문화회관 예매 VIP석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예매처 인터파크 YES24.COM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작곡/편곡 백현주 총음악감독/지휘 백진현 대본/연출 김지웅 합창지휘 조운환 음악감독 전성환 조명감독 이재철 부산오페라심포니오케스트라 해운대연기코러스 오페라 컴퍼니 동아대학교태권도학과
동일대학교영화학과 출연진 고아진 김유섬 김아름 최윤주 김 경 김지호 박민 박대웅 안세범 비안 장은녕 손혜은 탈레 박상진 김정대 김수휴 임성규 신대현 허광 한정현 윤오건



Cultural Story⁺

- 06 커버스토리
2015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 08 8월 공연 캘린더
- 10 반갑습니다
부산시립합창단 신임 수석지휘자 전상철
- 12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프랑스 오히악 국제거리연극공연축제 _강미라
- 16 불멸의 거장 - 박목월[®]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_장윤익
- 18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젊은 건축가의 발칙함 - 김혜 진영읍의 '휴담'_강기표
- 22 그곳에 가면
KIBO 과학기술체험관
- 24 우리는 문화가족
클라리넷 매력속으로 '클라속으로'
- 26 테마가 있는 여행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 창녕 우포늪

Boards Inside⁺

- 31 프리뷰
- 38 리 뷰
- 40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 53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54 새로 나온 책
- 55 새로 나온 음반
- 56 부산문화회관 소식
- 60 부산문화회관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9월 9일(수)-12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



부산문화회관이 지난해 부산시민들의 클래식 갈증을 해소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마련한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2015년 무대가 오는 9월 9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지휘자 금난새를 음악감독으로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내악팀들이 참가하는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은 아카데미한 트리오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체코의 트리오 마티누(Trio Martinu)와 세계 유수의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슬로바키아뿐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무차 콰르텟(Mucha Quartet), 글라스 하프라는 새로운 악기 연주에 도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남매 듀오인 폴란드의 글라스 듀오(Glass Duo), 뉴월드 필하모닉(구, 유라시안 필하모닉)의 수석단원들로 구성된 카메라타 S(Camerata S), 다양한 구성과 새로운 시도로 관객 안(in)으로 들어가고자 지난해 창단된 앙상블 인(Ensemble IN), 바로크에서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는 움 챔버 오케스트라(UM Chamber Orchestra), 그리고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구성된 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Busan Phill Encsemble)이 출연, 축제가 펼쳐지는 나흘 동안 시민들의 눈과 귀가 즐거운 아름다운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음악감독을 맡은 지휘자 금난새는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해설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늘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온 클래식 음악계의 스타 지휘자다. 지난 1998년부터 '벤처 오케스트라'인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현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금난새는 특히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로 지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전회 전석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금난새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로 청중들에게 더욱 친근한 음악회로 다가갈 예정이다.

2015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첫 무대는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4중주를 연주하는 체코의 트리오 마티누를 시작으로 해외 앙상블팀의 무대로 꾸며진다. 지난 1990년 창단한 트리오 마티누는 1995년 네덜란드 헤를렌의 국제 챔버 앙상블 최우수상, 1995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는 체코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올해의 앙상블상을 수상하고 Libor Pešk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Jean-Claude Casadesus가 지휘하는 프라하 심포니와도 협연하는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트리오 마티누의 무대에 이어서는 슬로바키아의 무차 콰르텟이 부산관객들과 만난다. 2003년 브라티슬라바 콘서바토리

에 재학중이던 멤버들로 창단된 무차 콰르텟은 첼리스트인 Pavol Mucha의 아버지이자 그들의 스승인 Moyzes Quartet의 제1바이올리니스트인 Stanislav Mucha의 이름에서 붙여졌다. 무차 콰르텟은 2010년 프라하 Bohuslav Martinů 국제 콩쿠르 2등상, 2012년 Gianni Bergamo Classic Music Award 3등상, 2013년 비엔나 Josef Windisch Prize, 2014년 안토닌 드보르작 국제 챔버 뮤직 컴페티션 우승 등 세계 유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드보르작 '피아노트리오 제4번 마단조 둠키'를 들려준다.

해외 앙상블 세 번째 참가팀인 폴란드의 글라스 듀오는 글라스 하프라는 새로운 악기로 전 세계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글라스 하프(Glass Harp)는 유리컵에 물을 담아 피치를 조절해 소리 내는 악기로, 젖은 손가락으로 유리잔의 가장자리를 쓰다듬으면 안에서 소리가 진동해 청아한 소리가 '천사의 악기'라고도 불린다. 듀오 무대 외에도 스트링 콰르텟, 챔버 앙상블,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를 가져온 글라스 듀오는 라디오, TV 등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 모차르트 'Rondo Alla Turca', 차이코프스키 '사탕요정의 춤'을 들려준다.

첫날 마지막 무대는 카메라타 S가 장식한다. 카메라타 S는 그동안 연주자들간의 단단한 구성력과 연주 실력을 바탕으로 가족음악회, 도서관 음악회, 굿모닝 클래식, 정원음악회 등 다양한 형태의 실내악 연주회는 물론 클래식 음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의미있는 음악회를 가져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다페스트 바이올린 콩쿠르, 야노스 콘츠 국제콩쿠르, 벨라 바르톡 챔버뮤직 콩쿠르, 루지에로 리치 바이올린 콩쿠르, 일본 나가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MCPAS Artist 콩쿠르 등 유수의 국제콩쿠르에 입상한 바이올리니스트 로드리고 푸스카스(Rodrigo Puskas)와 함께 비발디 '사계' 중 '겨울'을 들려준다.

둘째날인 10일에는 앙상블 IN의 무대가 펼쳐진다. 지난 2014년 창단 이후 매달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회 초청공연, 하우스 콘서트 등 다양한 구성과 새로운 시도로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가져온 앙상블 IN은 이번 무대에서는 하이든 현악4중주 작품 64 '종달새', 피아졸라 '오블리비언', 파스칼리 '별', 드보르작 현악4중주 사장조 작품 77을 들려준다.

셋째날인 11일에는 음 챔버오케스트라와 색소포니스트 김태현, 피아니스트 윤신원이 관객들과 만난다. 이날 무대에서는 크레스톤 '색소폰을 위한 소나타 작품 19', J.테메르스만 '환타지', 몬티 '차르다스' 등을 들려준다. 부산 출신 연주자들로 구성된 음 챔버오케스트라는 지난해 바로크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구, 연주하기 위해 결성된 후 청중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획으로 다른 장르와의 결합을 시도해오고 있다.

2015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의 마지막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Busan Phil Ensemble)이 장식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결성된 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멘델스존 '현악8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20', 모차르트 '오보에4중주 바장조 K.370', 베버 '클라리넷5중주 내림나장조 작품 34' 등 다채로운 챔버 뮤직을 선보인다.



8

2015 AUGUST

CULTURAL SCHEDULE

청림海 부산



인터넷 예매



공연일정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DAY	MONDAY	TUESDAY
<p>전시실 월드 프레스 포토(World Press Photo) 2015 - 중전시실 8월 1일(토)-8월 30일(일) 일반 1만원, 만13세~18세 8천원, 초등학교생 6천원 온지프렌즈(02-2038-2267)</p>		
<p>2</p> <p>중 창작 가족뮤지컬 '엄마 아빠, 형제는 많을수록 좋아요!' 11:00, 14:00 무료(예약필수) 끼리프로젝트(988-7721)</p>	<p>3</p> <p>중 창작 가족뮤지컬 '엄마 아빠, 형제는 많을수록 좋아요!' 11:00, 13:00 무료(예약필수) 끼리프로젝트(988-7721)</p>	<p>4</p> <p>대 2015 브니엘 무용 발표회 19:30 무료/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 무용부 (581-8651)</p> <p>소 부산문화회관 기획-피아니스트 박중화 '건반 위의 이야기' 11:00 균일 2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2~4)</p>
<p>9</p> <p>대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국제미술대회 결선, 시상식' 13:00, 나이트 매직 갈라쇼 19:30 BIMF 조직위원회(626-7002)</p> <p>중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글로벌 키즈 매직쇼' 10:30, '스페셜쇼-팀플레이 매직쇼' 15:00, 매직드라마 '화우' 17:30 BIMF 조직위원회(626-7002)</p> <p>소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명인렉처' 09:10, '2015 세계 전통미술프로젝트-중국' 15:00, 원맨쇼 17:00 BIMF 조직위원회(626-7002)</p>	<p>10</p> <p>대 제13회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무료/서영남(010-8140-4555)</p>	<p>11</p>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UKO 한여름밤의 음악회' 19:30 균일 2만원/UKO(010-3863-3087)</p> <p>중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인촌의 오페라 스토리' 19:30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p>
<p>16</p>	<p>17</p>	<p>18</p>
<p>23</p> <p>중 제33회 전국공모 KBS부산 무용콩쿠르 예선 10:00 KBS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620-7327)</p> <p>소 2015 여름음악페스티벌 16:00 무료/민소연(010-2802-2883)</p>	<p>24</p> <p>중 Son young il dance stage NO.2 '기억의 향' 20:00 손영일(010-3581-2156)</p>	<p>25</p>
<p>30</p> <p>중 제20회 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무료/조의진(010-9875-0700)</p> <p>소 2015 여름음악페스티벌 16:00 무료/민소연(010-2802-2883)</p>	<p>31</p> <p>중 김문주, 김진희 피아노 듀오연주회 19:30 초대/김진희(010-9928-3733)</p>	<p>중 (사)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초청 소프라노 정혜민 독창회 19:30 초대 우리아트(920-9545, 010-5555-3825)</p>

<예술에의 초대>는 Caffé Deme 카페메네 부산시 전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대 제3회 BNK금융그룹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연주회 16:00 초대/BNK금융그룹(661-4821) 소 한국청소년심리학회 제6회 토크콘서트 13:00 무료 한국청소년심리학회(010-5209-3010)
5	6 대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국제마술대회 본선' 13:00 BIMF 조직위원회(626-7002) 소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세계마술 도구 시연' 15:00 BIMF 조직위원회(626-7002)	7 대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국제마술대회 본선' 13:00, 나이트 매직 갈라쇼 19:30 BIMF 조직위원회(626-7002) 중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글로벌 키즈 매직쇼' 10:30, '차일드/실버 마술대회' 16:30 BIMF 조직위원회(626-7002) 소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명인렉처' 09:10, '피즘 그랑프리 워너쇼&노하우' 15:00 BIMF 조직위원회(626-7002)	8 대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국제마술대회 본선' 13:00, 나이트 매직 갈라쇼 19:30 BIMF 조직위원회(626-7002) 중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글로벌 키즈 매직쇼' 10:30, '스페셜쇼-팀플레이 매직쇼' 15:00, 매직드라마 '화우' 17:30 BIMF 조직위원회(626-7002) 소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명인렉처' 09:10, '2015 세계전통마술 프로젝트-중국' 15:00, 원맨쇼 17:00 BIMF 조직위원회(626-7002)
12	13 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19:30 2만원 ·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5, 3143) 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2015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19:3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7, 3108) 중 제1170회 MBC목요음악회 '부산콘서트라이어와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9:30 1만원 · 5천원 부산콘서트라이어(010-5555-3825) 소 키즈샘&프렌즈 가족뮤지컬 '개미와 베짚이' 10:10, 11:10 균일 5천원 키즈샘&프렌즈(02-6203-6593)	14	15 중 부산대학교 의·치대 관현악단 제43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 부산대학교 의·치대 관현악단 (010-6758-2875)
19	20 중 가페라 가수 이한 교수와 함께하는 드림콘서트 10:00 무료/(주)교원구문(627-4726) 소 CTS TV와 함께하는 제2회 김홍보 일마힐 가스펠콘서트 19:00 초대 김홍보(010-7740-9296)	21 중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 내친구' 11:00, 16:00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	22 중 제33회 전국공모 KBS부산 무용콩쿠르 예선 10:00 KBS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620-7327) 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관현악단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26	27 소 이정화와 춤추는 사람들 '굿맛이 춤' 19:30 이정화(010-4554-3260)	28 중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5 월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III -라 트라비아타' 11: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4~5,3100) 소 키즈샘&프렌즈 가족뮤지컬 '개미와 베짚이' 10:10, 11:10 균일 5천원 키즈샘&프렌즈(02-6203-6593)	29 소 토요일상설무대-스트로크타악기 앙상블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장점을 잘 살려내는 열정의 지휘자

부산시립합창단 신임 수석지휘자

전상철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로 국내외 무대에서 폭 넓은 활동을 펼쳐온 전상철 지휘자가 7월,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로 새로운 음악인생을 시작했다.

“이제 부산시립합창단과 교감하며 새로운 음악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산시립합창단 발전을 위해 단원들이 땀 흘려온 세월만큼 더 좋은 합창단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전상철 지휘자는 이번 합창단 지휘자 공모에서 지난 8년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며 차별화된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국내외에 소개하며 정상적 위치에 올린 열정, 합창 사랑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전상철 지휘자와 함께 2012년 ‘제33회 국제어린이합창페스티벌’에 아시아 팀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고, 올해는 아르헨티나 ‘이과수 국제음악제’에 참가해 한국과 부산을 알리는 최고의 하모니로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2013년 일본 키타큐슈 히비키홀 초청연주에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정애련 작곡가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연주하면서 일본 땅에서 태극기를 마음껏 휘두르며 연주했던 그날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이제 부산시립합창단과도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감동의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전상철 지휘자는 부산시립합창단과는 인연이 많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1993년 6월 울산시립합창단 창단 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그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로 부임하기 전 부산시립합창단의 기획담당으로 13년간 부산시립합창단의 운영과 소리의 다양성 등을 경험했다.

부산시립합창단 기획자로 그는 당시 여건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해외공연을 진행하며 부산시립합창단의 위상을 높였다. 1997년 호주·뉴질랜드 공연, 2000년 대만 초청공연, 일본, 중국 친선음악회, 2003년 독일 초청 연주, 2006년 독일 함부르크누필하모니 초청음악회 모차르트 ‘레퀴엠’ 5개 도시 순회 연주회가 전상철 지휘자가 추진한 공연들이다.

“2007년 6월에는 특히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바티칸 초청으로 공연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바티칸이라는 상징성도 있었지만 당시 단원들이 세계무대에서 당당하게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래했던 단원들의 열정을 잘 이끌어 내며 앞으로도 여운이 남는 큰

감동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취임과 함께 단원들과 합창단 발전 방향을 함께 구상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전상철 지휘자는 2015년은 기존 일정을 진행하며 합창단 단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취임연주회는 9월 이화여자대학교 박신화 교수의 객원연주회, 10월 창작 작품인 ‘부산아리랑 칸타타’ 공연에 이어 11월 26일로 예정하고 있다.

2016년 공연부터 전상철 지휘자가 구상하는 음악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수 있다. 현재는 2016년 첫 음악회로 베이스 단원 전원이 출연하는 ‘겨울 나그네’ 전곡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3월에는 위촉 창작합창 작품을 중심으로, 4월에는 모차르트 ‘레퀴엠’을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전곡을 연주하고, 5월에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 인기 프로그램 ‘7080 음악회’를, 6월에는 한국·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 음악회를 프랑스와 독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8월에는 청소년해설음악회, 9월에는 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음악회, 10월에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단원들이 준비하는 연가곡시리즈를, 12월에 브루크너 합창음악 등을 구상하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최고의 경험을 가진 합창단입니다. 오랜 경험과 연륜이 있는 합창단인 만큼 그동안의 활동 경험, 저의 장점을 살려 부산시립합창단의 전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한국합창조직위원회 예술위원, 부산합창연합회 사무국장, 부산콘서트콰이어 상임지휘자, 양산교사합창단 지휘자, 경성대학교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 20년간 무대에서 땀 흘려온 전상철 지휘자. 그와 함께 변화를 준비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의 하모니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상철 지휘자와 호흡을 맞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매년 세계 무대에서 초청받아 화려한 무대를 선보여왔다.

Festival international de théâtre de rue à Aurillac 오히약 국제 거리연극공연축제

글 강미라 프랑스 통신원





“

프랑스 중남부에 자리한 오히약(Aurillac)은 해발 600m의 높이에 Cantal이라는 산 아래에 위치하며 Jordanne과 Cère라는 강을 곁에 두고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작은 도시이다.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들로 이루어진 옛 시가지 주변에 신시가지가 형성되었으며, 고딕 양식의 노트르담 오네주 교회(1339)가 주광장에서 있다. 오히약은 오토베르뉴의 상업 및 관광 중심지이자 푸름과 블뢰도베르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치즈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젓소와 낙농제품 유통도시로도 유명하다. 현재 30,000명 정도의 인구가 모여사는 오히약은 8월 축제기간이 시작되면 120,000명의 관광객과 예술가들이 몰려들면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의 얼굴을 갖는다.

오히약을 찾기 위해서는 파리에서 출발할 경우, 오스텔리츠(Austerlitz)역과 베르시(Bercy)역에서 출발하여 Brivela Gaillard역이나 Figeac역, Clermont Ferrand역에서 한번 갈아타고 들어가야 한다. TGV가 지나지 않기 때문에 6시간 정도 걸리는 긴 여행을 해야 하지만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꼭 한번 찾아볼 만한 곳이라 생각한다.

오히약 국제 거리연극 공연축제는 지난 1986년 프랑스 거리극의 선구자인 미셸 크레스팽(Michel Crespin)에 의해 기획, 창설되었다. 현재는 미셸 크레스팽의 수제자인 장-마리 송지(Jean-Marie Songy)가 예술감독직을 맡고 있으며, 30회를 맞은 올해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펼쳐진다. 유럽 거리극의 종합무대라는 수식어를 가진 오히약 국제 거리연극 공연축제는 20여 개의 단체들이 초청(in)되며, 500여 개의 비공식 단체들이 참가(off)하고 있어 유료공연 외에도 많은 무료공연들이 열리면서 아비뇽축제 못지않은 분위기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활기를 채워준다. 도시규모는 프랑스의 어느 도시처럼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축제기간 동안은 모여든 인파로 인해 공연장 사이를 이동하는 시간은 평소의 2~3배를 초과한다.

오히약 국제 거리연극 공연축제는 많은 공연단체들이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로 공연장과 거리에서 관객을 맞이한다. 연극과 노래와 춤, 마임, 영화, 그림, 서커스 등 수많은 공연들을 굳이 찾아나서지 않아도 숙소에서 나가기만 하면 이곳 저곳에서 구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쉽게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움직일 수도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여유있는 주민들과 길거리에 앉아서 공연을 보다가 또 진지하게 공연에 몰입되어 있는 관객들을 느끼며 또 다른 세계에 빠져들기 쉽다.

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표현의 자유와 수준있는 작품들이 관광객, 관람객들을 사로잡으며 여러 축제 단체나 극장의 전문가들이 방문해 예술단체들의 작품을 사고 파는 흥미있는

만남들이 이루어진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신선하면서도 새로운, 수준있는 작품들을 찾아 여러 축제들을 방문한다. 물론 많은 공연단체들은 이들의 눈에 띄어 그들의 작품이 팔리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약 국제 거리연극 공연축제를 ‘거리극 전시장(vitrine)’이라 부른다. 오히약 국제 거리연극 공연축제에 다녀가면 한 해에 창작되는 거리극 작품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오히약 국제 거리연극 공연축제는 나라와 도와 시의 지원금으로 진행되며 다른 축제처럼 여러 예술단체들을 초대해 이 도시에 머물며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규모가 큰 연극단체들은 이 페스티벌 자체에서의 지원금과 오히약 극장의 장소 제공과 경제적 도움으로 몇 년 동안의 작업에도 많은





유럽 거리극의 종합무대라는 수식어를 가진 오히약 국제 거리연극 공연축제는 유료공연 외에도 많은 무료공연들이 열리면서 아비뇽축제 못지않은 분위기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활기를 채워준다.

지원을 받지만 많은 비공식 단체들(off)은 경제적인 도움은 전혀 없이 자비로 공연에 참가한다.

오히약 국제 거리연극공연축제에 참가하고자 하는 비공식 단체들의 선발은 대중공간을 이용, 열린공간에서의 관객들과의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상징성을 두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장식하는가 등 참가단체들은 이 축제의 참가와 진행에 책임을 가지고 축제 기간 중 언제 그리고 길거리, 광장, 정원 등 어디서 공연을 할 것인지를 신청하고 통보를 기다린다. 이후 공연을 허락 받았을 때는 공연을 위한 테크닉 설치며 전기, 숙박, 주차 등 필요한 것들을 각자 준비하고 예약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아무런 지원금의 혜택 없이 축제기간 동안 단지 시간과 장소를 허락받는 것이다. 또한 모든 단체들은 공연보험을 들어야 하며 아니면 이 축제측에서 보험을 추천해준다.

오히약은 작은 인구가 모여사는 소도시이므로 숙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숙박은 아주 오래전에 미리 예약을 해둬야 하며 아니면 이 도시의 관광소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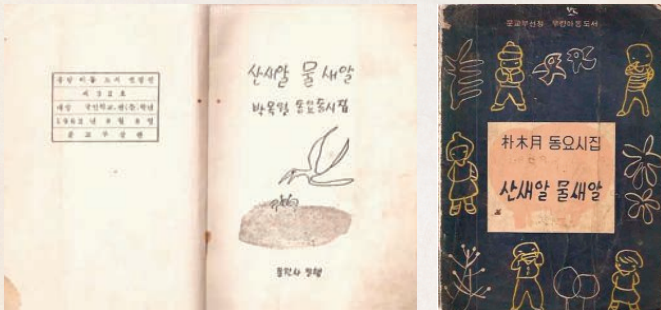
올해는 ARTONIK, DELICES DADA, LA COMPAGNIE DU DEUXIÈME, LE G.BISTAKI, LES CHIENS DE

NAVARRÉ, PLASTICIENS VOLANTS, THÉÂTRE DU CENTRE, WIRED AERIAL THÉÂTRE 등 많은 예술단들이 30회 페스티벌을 위해 관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영국단체인 'WIRED AERIAL THÉÂTRE'는 무용수가 밧줄을 매고 공중에서 비디오 영상과 함께 무대를 수평과 수직면으로 변형시키며 요즘 시대의 심각한 경제난을 이야기한다. 기획자, 음악가, 창조가, 배우, 조형예술가, 제작자(건설자) 등 10명으로 이루어진 'Carabosse'라는 공연단체는 지원을 받아 이곳에서 이미 페스티벌 참가를 준비해오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공공장소만 다니며 공연을 가져온 'Carabosse'는 작품에 불꽃을 설치, 사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세계를 돌며 어둡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불과 물과 공기, 철 등을 설치해 그들의 인간미를 표현하고 있다.

올해 오히약 국제 거리연극 공연축제 포스터의 상징인 하얀 깃발은 요즘 시대에 두드러지는 세계의, 유럽의 정치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문화의 차이, 개인주의의 문제들을 서로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글 장윤의 동리독월문학관장 · 문학평론가



동요시집 <산새알 물새알>

박목월의 시는 동요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대구 계성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1933년 동시 '통딱딱 통딱딱'이 잡지 <제비맞이>의 현상모집에 당선되어 아동문학과 인연을 맺는다. 그래서 그의 시는 어린이들과 늘 가까운 자리에 있다.

박목월의 동요 '얼룩 송아지'는 1946년 10월에 출간된 동요집 <초록별>에 나온다. 이 동요집에는 '얼룩 송아지', '토끼방아', '여우비', '옛날 옛날', '봄바람', '어린이 노래'를 비롯한 42편의 동요가 실려 있다. 윤석중(尹石重) 아동문학가는 머리말에서 "나는 믿습니다. 이 '초록별'로 해서 조선의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산과 내와, 새와 꽃과, 잠과 꿈과, 그리고 아기의 마음과 얼굴이 더욱 환해지고 더욱 아름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중 동요작가는 박목월의 동요가 어린이들의 마음과 얼굴을 밝게 할 것이라고 <초록별> 발간의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어미소와 송아지는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사람의 친구가 되는 소박하고 천진한 동물이다. 박목월은 어미를 닮은 유전의 속성을 '얼룩 송아지'의 동요로 형상화 한다.

"송아지 송아지 / 얼룩 송아지 // 엄마 소도 얼룩 소 / 엄마 닭았네 // 송아지 송아지 / 얼룩 송아지 / 엄마 귀도 얼룩 귀 / 귀가 닭았네"의 동요는 1960년 서울대학교 음악학부 출신 손대업 작곡가에게 발견된다.

6·25 전쟁이 끝난 1960년대에 들어 오면서 전쟁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에 '얼룩 송아지'는 학교의 교실과 운동장, 골목길과 들판에서 어린이들은 물론 국민의 마음을 달래는 노래로 불리어졌다.

박목월 동요동시집 <산새알 물새알>에는 '물새알 산새알', '얼룩 송아지', '다람다람다람쥐', '이야깃길', '가랑비', '여우비', '자장가' 등 63편의 동요 동시가 실려 있다. 그중 '이야깃길'과 '물새알 산새알'은 '얼룩 송아지', '뼈꾸기', '흰구름', '이야깃길', '노래는 즐겁다' 등의 동요와 함께 어린이들이 애송하고 즐겨 부르던 동요와 동시이다.

“동무 동무 씨동무 / 이야깃길로 가아
자 / 옛날 옛날 옛적에 / 간날 간날 간
적에 / 아기자기 재미나는 / 이야깃길
로 가아자 // 동무 동무 씨동무 / 꽃밭
길로 가아자 / 옛날 옛날 옛적에 / 간날
간날 간적에 / 아롱다롱 재미나는 / 꿈
밭길로 가아자”
(‘이야깃길’ 전문)

“물새는 / 물새래서 바닷가 바위 틈에 /
알을 낳는다 보양게 하얀 / 물새알 //
산새는 / 산새래서 잎수풀 동지 안에 /
알을 낳는다 / 알락 알락 얼룩진 / 산새
알 // 물새알은 간간하고 짝조름한 / 미
역 냄새 / 바람 냄새 // 산새알은 / 달
콤하고 향긋한 풀꽃 냄새 / 이슬 냄새
// 물새알은 / 물새알이래서 / 날갯죽
지 하얀 / 물새가 된다 // 산새알은 / 산
새알이래서 / 머리꼭지에 빨간 땀기를
들인 / 산새가 된다”
(‘산새알 물새알’ 전문)

박목월은 ‘이야깃길’에서 ‘아롱다롱 꿈
밭길’을 가는 재미’를 발견하고, ‘물새알
산새알’에서 ‘미역 냄새 바람 냄새, 달
콤하고 향긋한 풀꽃 냄새’를 맡는 동심
의 세계와 교류한다.

“내가 동시를 쓰는 동안에 즐거운 까닭
도 여기에 있다. 비에서, 바람에서, 딱
지에서, 은전에서, 공에서, 들에서, 참
새에게서, 지금까지 우리가 비, 바람,
딱지...하고 생각하고 불러온, 그런 것
이 아닌 아주 새로운 것을 느끼는 즐거
움이 바로 동시를 쓰는 즐거움이다. 나
는 그것을 참비, 참바람, 참딱지, 참참
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에서 참된 그
것을 느끼며, 그것을 발견하고 만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가.”
(동요동시집 <산새알 물새알>의 꼬리말)

박목월은 새로운 것과 참된 것을 만나
는 즐거움이 바로 동시를 쓰는 기쁨이
며, 사물을 순수하게 느끼고 바라보는

동심의 승화가 동요창작의 출발이라고
전달한다.

최동호 교수는 “목월은 <초록별>(1946),
<물새알 산새알>(1962) 등의 동시집
을 내고, ‘얼룩 송아지’라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동시를 발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생래적으로 동시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라는 말로 박목월을 생래적인 동요 동
시작가로서 평가한다.

그가 예를 들고 있는 “송아지 송아지 /
얼룩 송아지 / 엄마 소도 얼룩 소 / 엄
마 닮았네”의 ‘얼룩 송아지’는 언제 들어
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따라 부
르고 싶은 동요이다.

‘불멸의 거장 박목월’은 이번호로 끝을 맺습니다.
다음호에는 ‘조선 후기 화가 변박’ 편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집필해주신 정운익 동리목월문학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젊은 건축가의 발칙함 - 김해 진영읍의 '흙담'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인제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진영(進永)은 김해시의 서쪽에 위치한 읍이다. 동쪽의 화포천을 통해 한림면, 북쪽·서쪽의 주천강과 주향천을 통해 창원시와 마주한다. 읍소재지인 여래리를 비롯해 하계리, 진영리 등 13개리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하계면 지역이었다가 1914년 중북면 일부와 상북면 가동리 등을 병합하였고, 1928년 진영면으로 개칭하였으며 1942년 읍으로 승격되었다. 향토 자료에 의하면 진영이라는 지명은 풍수지리설에 따라 군사들의 진영(陣營) 형국이라는 것에서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흙담>은 진영읍에 있는 신용리의 국도14호선 변에 자리하고 있다. 동쪽으로 차로 5분 거리에 <봉하마을>과 <故 노무현 대통령 사저>¹⁾,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²⁾ 그리고 <봉화산 마애불(烽火山磨崖佛:경남유형문화재 제40호)>이 있다.

<흙담>의 대지 앞 도로는 산업화와 도시 간 연결도로로 하루 수백 대의 트럭과 승용차가 속도를 잃은 채 내달리며 강한 속도의 힘을 갖고 있다. 주변은 시골마을이 그러하듯 슬레이트 지붕의 농가와 과수원 창고들이 즐비한 농촌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들어 산업화의 패널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흙담>은 마을의 끝자락과 국도변 사이에 들어서 있는 3층으로 이루어진 전통다원이다. 1층은 '도울장'이라는 이름으로 다도문화원과 효소발효마당, 기숙사가, 2층은 전통다원인 '흙담', 3층은 '외당'이라는 이름의 카페테리아와 주택으로 복합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 ① 휴담-노출콘크리트 정원 벽면과 연못, 그리고 쉼터 의자_©강기표
- ② 휴담-전경_©김용관
- ③ 휴담-콘크리트 블록 사이 자연의 생명력_©김용관

고양이가 발자국

먼저 맞이하는 건 아담한 정원이다. 콘크리트 블록과 맷돌의 바닥이 잔디와 어울리고 있고, 노출콘크리트 벽체의 연못은 수련을 담기도 하늘을 담기도 하고 쉼터의 의자가 되기도 한다. 낮은 둔덕에 심겨진 나무들과 용기와 석탑은 소박하지만 단아한 정원을 보여준다. 1층의 피로티를 이용한 장독대는 효소발효라는 기능적 공간 이상의 소담스러운 옛 정취를 보여준다.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고양이가 남긴 발자국은 그대로 있고(시공 실수라는 흔적으로 지워 버렸을 텐데...) 시공의 시간과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흔적을 담고 있다.

시간과 공간이 그리는 빛의 그림

전벽돌의 계단을 오르면 전통 다원에 이르게 된다. 출입홀을 두고 크게 두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오른쪽의 공간은 개별 다실로, 왼쪽 공간은 개별 다실과 마루 공간이 1층 기숙사 옥상 정원의 푸름을 향해 있다. 외벽과 내벽을 마무리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에 의해 만들어지는 빛의 변화는 시간에 따

라 빛의 그림을 만들기도 하고, 공간의 변화를 주기도 한다. 개별 다실의 한지의 문인화는 공간 구분의 벽체가 되기도 하고, 밤의 조명에 의하여 빛을 품은 갤러리가 되기도 한다. 3층을 오르면 카페테리아가 진영의 푸르른 산야와 함께 맞이하고 있다. 원형의 높은 천정과 노출콘크리트와 흰색 페인트 벽면의 카페테리아는 2층의 빛과 콘크리트 블록의 비개방적 공간과 달리, 진영의 푸르른 산야를 향해 열려 있다. 전벽돌의 바닥으로 마감된 발코니는 카페테리아에 개방성을 더하며, 비와 바람을 받아들이는 완충 공간이기도 하다. 후면의 계단과 전면의 계단과 분리된 듯 연결되는 3층의 주택은 3개의 방과 주방과 거실로 구성되어 있고 거실과 주방 사이의 중정은 좁은 주택의 허파와 같은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거실 측면의 나지막한 다락은 옥상과 연결되며 수직적 확장으로 공간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발칙한 건축가

건축가 푸하하하프렌즈(윤한진, 한승재, 한양규)³⁾는 “흙담은 주변에 순응하기 보다는 주변의 힘에 맞서는 길을 택했다. 화물트럭의 굉음과 대지를 둘러싼 자연의 시선에도 위축되지 않는 거칠고 무서운 힘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며 대지 앞 국도가 갖고 있는 강한 힘에 맞서고자 발칙한 재료들을 쓰고 있다. 현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블록은 외벽의 재료가 되





- ④ 휴담-3층 주택의 거실과 다락과 옥상 마당_©김용관
- ⑤ 휴담-문인화의 벽면_©강기표
- ⑥ 휴담-콘크리트 블록의 사이공간으로 스며드는 빛_©김용관
- ⑦ 휴담-진영의 푸르른 산야와 3층의 카페테리아 외당_©강기표

며 내벽으로 치환되며 빛의 질감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외부 정원의 바닥재가 되기도 하여 잔디를 담기도 한다. 미장 합판을 사용하지 않은 노출콘크리트는 거푸집 유로폼의 불규칙한 무늬와 유로폼을 긴결시키는 핀을 제거하지 않고(대부분은 제거하고 또 다른 마감재를 쓴다.) 그대로 둠으로써 미완공 같아 보이지만 마감은 이걸로 끝이다. 화장하지 않은 시골 아낙네의 얼굴이랄까... 투박함이 절로 나타난다. 휴담이라는 재료의 취약성을 콘크리트로 치환한 듯하다. 거친 노출콘크리트는 3층 주택과 카페테리아 내벽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계단과 2층의 바닥재로 사용되고 있는 검정색의 전벽돌은 콘크리트 블록과 사이공간으로 들어오는 빛을 품어 은은히 반사하고 있다.

건축은 빛의 예술이라고도 한다. 어떤 건축가는 빛을 통하여 시간을 담기도 하고 또 다른 건축가는 빛을 통하여 공간의 변화를 주기도 한다. <휴담>은 두 가지 빛을 쬐은 건축가의 발칙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출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전벽돌, 원형 철근, 합판 등은 재료가 갖는 한계를 넘는 실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건축은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의 삼위일체에 의하여 태어난다. 발칙한 상상력을 보여준 건축가, 발칙한 건축을 수용한 건축주, 발칙한 상상을 시공한 시공자... 모두 재기와 발칙함으로 뭉친 것 같다.

1) 故 노무현 대통령 사저 (2006~2008)

정기용(1945~2011) 건축가의 작품으로 집의 자재는 전부 자연 소재인 흙과 나무와 돌 위주로 사용하는 등 자연친화적으로 지어졌다. 마을의 농촌주택과 어울리게 낮은 지붕을 택하며 대통령 사저라는 권위적 외관과 재료에서 벗어나 있다.

2)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

승효상(1952~) 건축가의 작품이다. 수반(입구의 작은 연못), 헌화대(참배공간), 너럭바위(지하의 안장시설을 덮고 있는 남방식 고인돌 형태의 낮은 바위), 곡장(묘역 뒤편의 내후성강편의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3) 건축가 푸하하프렌즈

30대의 젊은 건축가그룹이다. 윤한진 건축가는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를 한승재 건축가는 세종대학교 건축학과를, 한양규 건축가는 전북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였다. 세 건축가 모두 '디자인캠프문 박디엠에서 실무를 익히고, 의기투합하여 2013년 건축가그룹 '푸하하프렌즈'를 설립하였다. <휴담>으로 2014년 '제15회 김해건축대상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5년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개최된 'YOUNG CREATIVE KOREA 40인전에' 출품, 전시하였다.

미래 과학의 꿈을 키우는

KIBO 과학기술 체험관



국내 최고층 오피스 건물인 63층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의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부산은행 등 부산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모여있는 문현금융단지. 금융중심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이 곳에 미래 과학의 꿈을 키우는 특별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술금융지원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KIBO 과학기술체험관'이 바로 그 곳. KIBO 과학기술체험관은 과학체험공간이 부족한 부산, 경남지역에 과학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과학체험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별관 1층에 자리한 KIBO 과학기술체험관에 들어서자 다양한 전시물이 방문객들을 맞는다. 미래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에서부터 안경, 시계, 의복 등 몸에 착용하는 차세대 스마트기기인 웨어러블(wearable) 컴퓨터, 사람의 조직이나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장기의 종류와 기능,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환경공학기술, 우주항공기술, 문화콘텐츠기술 등 미래유망산업이라 불리는 6T산업, 장소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산업, 차 안에서 모든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텔레메틱스 시스템 등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배울 수 있다.

특히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KIBO 과학기술체험관의 자랑으로, 이 곳의 가장 인기스타인 트랜스포머 로봇은 언제나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리모콘 명령신호에 맞춰 자유롭게 조정가능한 바이올로이드 로봇에 이어 신나는 음악과 조명에 맞춰 요즘 아이들 못지않은 화려한 군무를 선보이는 6대의 로봇은 특히 어린이 관객들에게는 인기 폭발이다. 실제 영상을 통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비행시뮬레이션기와 터치스크린을 통한 CSI 수사대, 신약개발 치료 게임 등도 직접 체험을 통해 즐길 수 있다.

객석이 덜컹거리고, 바람이 나오는 4D영상관 역시 KIBO 과학기술체험관의 또다른 자랑거리. 10억분의 1을 가리키는 미





7월 16일 KIBO 과학기술체험관을 찾은 영재어린이집 어린이들.

세단위인 나노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나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다. 4D영상관까지 전시관을 모두 둘러본 후에는 비즈장식물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살펴보는 '자외선 비즈 만들기', 나노 구조물인 플라렌 만들기를 통해 나노구조를 이해해보는 '플라렌 체험' 등 과학이론을 접목시킨 간단한 만들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5월 문을 연 KIBO 과학기술체험관은 현재까지 2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갔다. 지난 한해 방문객 수만도 8천100여 명. 특히 올해 들어 문헌금융단지가 들어서고 금융통합교육 프로그램인 '부산금융박물관로드'가 시작되면서 방문객 수는 더욱 늘고 있다. '부산금융박물관로드'는 문헌금융단지 내에 자리한 기술보증기금 과학기술체험관, 부산은행 금융역사관, 한국거래소 홍보관, 한국은행 부산본부 화폐전시관을 투어하는 체계적인 금융통합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KIBO 과학기술체험관 외에도 한국 금융과 자본시장의 역사

와 문화를 담아 놓은 한국거래소 'KRX 스퀘어 홍보관', 부산의 향토은행 BNK 부산은행의 역사를 비롯해 금융, 경제를 배울 수 있는 '부산은행 금융역사관', 화폐의 모든 것을 전시한 '한국은행 화폐전시관'을 모두 둘러볼 수 있다. '부산금융박물관로드'는 매주 금요일,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예약이나 자세한 문의는 전화(051-661-4816) 또는 홈페이지(bfmr.busan.com)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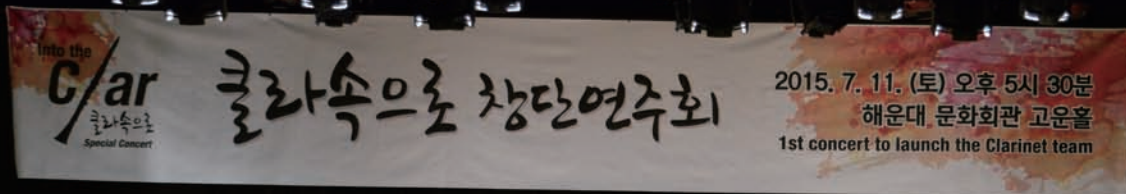
KIBO 과학기술체험관 체험 역시 무료로 가능하며 개인 및 가족 관람객은 예약없이 관람가능하나 단체관람 시에는 사전 예약해야 한다. 개인이라도 로봇댄스, 4D영상관, 체험프로그램은 사전에 예약이 필요하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5:00
- 휴관일/매주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 문의/KIBO 과학기술체험관(606-7381, www.kibo.or.kr)

클라리넷 매력속으로

클라리넷 동호회 클라속으로

장대한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두 남녀의 사랑과 삶을 그린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제는 고전이 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로버트 레드포드와 메릴 스트립이라는
명배우의 연기 앙상블과 광활한 아프리카 자연을 그대로 담은 아름다운 영상 외에도 영
화 속 잔잔히 흐르던 배경음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영화 속에 등장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모차르트 클라리넷협주곡 제2악장 아다지오. 맑으면서도 따뜻한 클라리넷
선율이 영화의 감동을 더욱 진하게 해준다.



관악기 중에서도 가장 인간의 목소리를 많이 닮은 클라리넷은 목관 악기 중 가장 음역이 넓고 음색이 풍부하다. 모차르트가 생애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악기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두달 전에 완성한 클라리넷협주곡은 20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클라리넷 동호회 '클라속으로'는 이런 클라리넷 선율의 매력에 빠진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모임으로, 지난 2013년 11월 클라리넷 동호회로서는 부산에서 처음 결성됐다. 온라인모임으로 유대를 가져온 클라리넷 동호회 '클라리넷 고고'의 부산지역 회원들이 의기투합해 결성한 '클라속으로'는 현재 2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결성 당시만 하더라도 한달에 한 번 모여 개별적으로 익힌 실력을 회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여름,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악장으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원준연 씨가 합류하면서 체계적인 앙상블 연습과 함께 클라리넷 동호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클라리넷 동호회가 생소한지라 마침 아는 지인이 활동한다고 해서 잠시 들렀다가 보다 체계적인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 트레이너를 자처하고 나섰죠. 아직은 회원들의 실력이 천차만별이라 앙상블 연주에 어려움이 있지만 클라리넷에 대한 열정만큼은 전문가인 저도 매번 감탄합니다.”

'클라속으로'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 저녁 해운대문화회관 연습실에서 연습을 겸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지난 7월 11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클라속으로' 창단연주회를 가지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 '클라속으로'는 이날 독주뿐 아니라 듀오, 앙상블 등 그동안 늦은 밤까지 남아 갈고닦은 실력들을 유감없이 무대 위에 쏟아내면서 참석한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클라속으로' 결성에는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정창영 씨의 노력이 컸다. 처음 인터넷카페에서 부산모임을 제안한 이도 바로 정창영 회장이다. 같은 사무실 직원이 연주하던 클라리넷 소리에 반해 클라리넷을 처음 손에 잡았다는 그는 당시 아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클라리넷 강습을 열기도 했다. 그동안 색소폰, 플루트, 기타, 피아노 등 다른 악기들도 배워보았지만 클라리넷 악기의 매력에는 당할 수 없다는 정창영 회장은 사무실이나 집에서는 물론 인근 바닷가에서도 연습을 할 정도로 못말리는 클라리넷 사랑을 펼치고 있다.

“음악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갖자”는 정창영 회장은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음악으로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이끌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연주회 외에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우리 이웃과 만날 예정이다.

'클라속으로'의 숨은 일꾼 이재경 씨도 '클라속으로' 창단 멤버이다. 피아노를 배우는 자녀의 연주회에 갔다가 오보에라는 악기를 알게된 이재경 씨는 처음에는 오보에를 배우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다 운명적으로 클라리넷과 만났다. 2013년부터 문화센터를 통해 클라리넷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지금도 실력을 쌓기 위해 문화센터에 나가고 있다. 클라리넷을 보다 잘 알기 위해 '클라리넷 고고'에 가입하면서 '클라속으로'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그는 앞으로 실력을 더욱 쌓아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연주자로 활동하는게 꿈이다.

■ 문의/클라속으로(010-4646-6647)



클라속으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클라리넷 동호회로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실력을 키우고 있다.

환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에코투어 2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 창녕 우포늪

여행의 설렘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색다른 문화체험 프로그램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이 7월부터는 환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에코투어'로 진행되었다.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후원으로 진행되는 ‘에코투어’는 지난해 테마여행 100회를 기념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의 향기를 함께 누릴 수 있어 지난해 정기회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올해는 7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 창녕 우포늪을 시작으로 8월 도심 속 생태습지를 찾아가는 울주군 화야댐 생태습지, 9월 한려수도의 중심 사천 갯벌탐방, 10월 지리산을 따라 흐르는 섬진강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동 지리산 생태탐방, 11월 해인사 문화생태탐방 명소인 소리길, 12월 살아있는 자연사박물관 창원 주남저수지 철새탐방으로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는 ‘에코투어 2’가 이어질 예정이다.

‘2015년 에코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창녕 우포늪 여행은 지난 7월 10일 정기회원 44명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졌다. ‘생태교육’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이번 테마여행에는 여름방학을 앞둔 자녀들과 참석한 정기회원들이 유독 많았다. 특히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권순유, 김성 씨가 동행하면서 우포늪에서 펼쳐질 야외콘서트에 회원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았다.

태풍 ‘찬홈’의 북상을 앞두고 찌푸린 날씨 속에 두시간을 달려 첫 탐방지인 우포늪 주매제방에 도착하자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던 생태해설사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1억 4천만년 전 한반도 생성과 함께 탄생된 우포늪은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로, 원시적 저층늪을 그대로 간직한 마지막 자연늪이다. 산으로 둘러싸여 개발이라는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우포늪은 70만 평에 1,000여 종의 많



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 특히 우포늪은 지난 1998년,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람사르협약’ 보존 습지로 지정되면서 세계적인 생태 보고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포늪의 중요성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리려는 해설사의 열정에 회원가족들의 눈빛이 진지하기만 하다. 한시간 가량 우포늪을 둘러본 후 정기회원들은 주매제방 인근에 자리한 우포자연학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푸른우포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우포자연학습원은 국내 최대, 최고 시설을 갖춘 현장학습장으로, 생태학습관과 수목관찰원, 수생식물관찰원, 늪체험장 등을 갖추고 방문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다. 본격적인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부산시립합창단 단원들의 야외콘서트가 먼저 펼쳐졌다.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권순유, 김성 씨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앙상블이 싱그러운 숲 속 무대에 울려 퍼진다. 음향시설 하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 단원이 빚어내는 열정적인 무대에 정기회원 가족들의 박수가 절로 터져나온다.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무대를 뒤로 하고 본격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교육영상물을 시청한 후에는 본격적인 현장 체험활동을 가졌다. 학습원에 조성된 관찰로를 따라 수생식물과 수서곤충을 관찰하고 직접 뜬채를 이용해 채집에 나섰다. 물방개, 송장해엄치개, 게아재비, 소금쟁이, 물장군 등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수서곤충 채집에 아이들보다도 마치 어린시절로 되돌아간 듯 어른들



의 반응이 더욱 뜨겁다.

소풍이라도 나온 듯 옹기종기 모여앉아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 가족들은 학습원에서의 마지막 체험프로그램인 늪에서의 장대나뭇배와 뗏목타기에 나섰다. 마치 직접 배를 타고 우포늪을 탐방하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체험은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마치 수영장에 온 듯 늪에 스스럼없이 뛰어드는 아이들의 모습에 바라보는 어른들도 신나한다.

오후에는 우포를 품고있는 창녕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창녕 박물관과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그리고 창녕 석빙고를 통해 창녕의 역사탐방에 나섰다. 창녕의 대표적인 고분군이라 할 수 있는 교동고분군 인근에 자리한 창녕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가야시대까지 창녕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고대 6가야 중 하나인 비화가야(非火伽倻)의 무덤이었던 교동고분군, 송현동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철의 왕국’ 가야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국보 제33호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는 신라 진흥왕 당시

세워진 것으로, 북한산, 황초령, 마운령에 있는 순수비와 달리 ‘순수관경(巡狩官境)’이라는 말이 없고 다만 왕이 새 점령지를 다스리는 내용과 이에 관련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어 따로 ‘척경비(拓境碑)’라고 불린다. 원래는 창녕 목마산성 서쪽 기슭에 있었으나 현재는 만옥정(창녕공원)에 옮겨 보존되고 있다.

보물 제310호인 창녕 석빙고는 경주, 안동, 청도, 현풍, 영산 등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6곳의 석빙고 중 하나로, 외부의 모양이 마치 거대한 고분처럼 보이고 뒤에 흐르는 개천에 직각되게 남북으로 길게 구축되어 있다. 석빙고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경주나 안동의 석빙고와 동일하며 석빙고 앞에는 축조를 기념한 비석이 있어 조선 영조 18년인 1742년 축조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2015년 에코투어의 시작을 알렸던 창녕 테마여행. 자연과 사람, 역사가 공존하는 창녕에서의 여행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에코여행을 통해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별후원 :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에코투어2*



사천 갯벌

9월 11일(금)

한려수도의 중심 사천 갯벌 탐방

육상과 해상의 생태계 완충작용과 연안 생태계 유지물로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는 사천 갯벌탐방. 하루 2회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비토섬 갯벌과 사천갯벌 탐방로를 둘러보며 갯벌의 중요성을 배운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09:30 다래와인갤러리 답사
- 12:00 중식
- 13:00 비토섬, 사천 갯벌 학습장
- 15: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30 부산으로 출발



하동지리산 생태과학관

10월 2일(금)

하동 지리산 생태탐방

지리산을 품고 있는 하동을 방문,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지리산생태과학관에서 자연을 느끼며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학습하며 각종 생태 체험활동을 진행,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본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하동 지리산생태학습관 도착, 해설사와 함께 지리산 자연탐방
- 12:30 중식
- 13:00 매암차박물관 방문, 차만들기 체험
-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5:30 골목길 갤러리 탐방
- 16:30 부산으로 출발

8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고순재(남구 신선로)
김경화(부산진구 신암로)
김윤희(남구 석포로)

문정숙(금정구 중앙대로)
박은희(연제구 법원로)
송희윤(연제구 온천천남로)
신미향(수영구 수영로)
이수비가(남구 분포로)
조용진(부산진구 부전로)
최선주(남구 유엔로)

기존 회원

김강영(동래구 복천로)
김성덕(사상구 냉정로)
김순덕(기장군 차성로)
문봉재(북구 금곡대로)
박명자(해운대구 마린시티로)
손옥주(동구 초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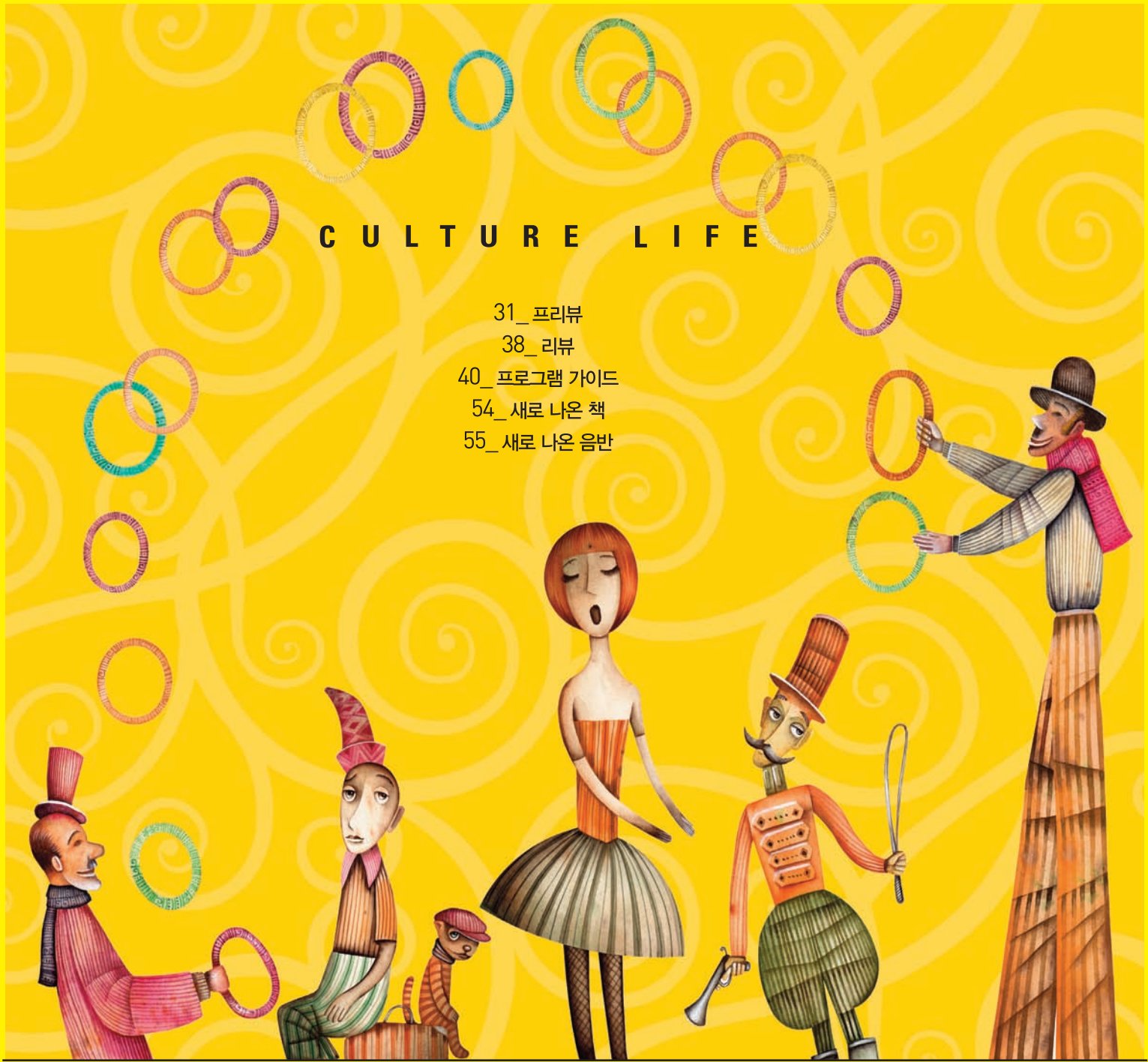
윤한오(동래구 총렬대로)

정기모(기장군 차성로)
최정숙(서구 임시수도기념로)
한선경(동래구 안남로)



C U L T U R E L I F E

- 31_ 프리뷰
- 38_ 리뷰
- 40_ 프로그램 가이드
- 54_ 새로 나온 책
- 55_ 새로 나온 음반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울속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뜨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탈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응시의 눈빛, 그 10년

8.6(목)-8.9(일)

해운대해수욕장 야외 특설무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매년 여름 황홀하면서도 놀라운 매직의 세계를 선사하는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이 올해로 10돌을 맞는다.

8월 6일 해운대해수욕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공식행사를 시작으로 나흘간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지는 2015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10주년을 기념해 ‘응시의 눈빛, 그 10년’이라는 테마로 새로운 매직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지난 2006년 아시아 최고의 매직페스티벌로 첫발을 내딛은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국내외 유명 매지션들과 아마추어 매지션들이 함께 참여, 매직인구의 저변확대와 국제화를 통해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매김 해왔다. 특히 올해 행사를 앞두고 지난 7월 11일에는 핀란드 헬싱키를 제치고 부산이 2018년 세계마술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더욱더 축제분위기에 휩싸이기도 했다.

10주년을 맞는 올해는 세계마술연맹(FISM)의 도메니코 단테 회장(이탈리아)을 비롯해 부회장인 게릿 브랭만(벨기에), 홍콩마술협회 회장 알버트 탐(홍콩), 캐나다마술협회 창립자인 조안 시저(캐나다), 아시아마술연맹(AMA) 회장 다이 우 치(중국), 라틴아메리카 마술사연합(FLASOMA) 회장 헥토르 카리온(아르헨티나), 일본 매직랜드 대표로 제1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때부터 심사위원을 맡아온 톤 오노사카, 스페인 일루전협회 회장 메이 클로사(스페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매지션들이 부산을 찾는다. 특히 올해는 장르를 구분해 진행되었던 예년과 달리 마술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보여준다.

사전 영상물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선발된 매지션들의 권위있는 마술대회인 부산국제마술경기대회는 올해 ‘나는 가수다’ 마술사 버전으로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등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20여 명의 마술사들이 몇 년에 걸쳐 완성

시킨 마술연기로 우승자를 가린다.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국내외 최정상 매지션들의 화려한 매직갈라쇼를 관람할 수 있는 ‘나이트 갈라쇼(Night Gala show)’, 세계 최정상의 마술 명인들과 함께 하는 마술 강의 ‘명인 렉처(Noted Magician Lecture)’ 외에도 올해는 매직과 연극이 만나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매직드라마 ‘화우’, 마술사 단독 진행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월맨쇼’, 키즈 매직으로 유명한 국내외 마술사들이 진행하는 어린이 마술공연 ‘글로벌 키즈 매직쇼’, 어린이와 실버세대만 참여할 수 있는 ‘차일드/실버마술대회’, 팀원들간의 화려한 앙상블을 감상할 수 있는 스페셜쇼 ‘팀플레이 매직쇼’, 전통마술을 발굴, 계승하고 연구하기 위한 ‘전통마술문화재찾기 프로젝트-중국편’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마술 축제로서의 위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입장료 국제마술대회, 차일드/실버 마술대회, 글로벌 키즈매직쇼 균일 1만원
스페셜쇼(팀플레이 매직쇼), 매직드라마 ‘화우’ R석 2만 5천원, S석 2만원
나이트 매직 갈라쇼 VIP석 4만원, R석 3만원
문의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626-7002, www.hibimf.org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한 여름밤의 음악회’

8.11(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이동신



피아노 오현정



소프라노 배수진

한 여름밤 무더위를 아름다운 클래식음악으로 날려줄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한 여름밤의 음악회’가 8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마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오현정과 소프라노 배수진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차이코프스키 ‘예프게니 오네킨’ 중 ‘폴로네이즈’를 시작으로 쇼팽 ‘피아노협주곡 제2번’, 슈트라우스 ‘황제 왈츠’, 최영섭 ‘그리운 금강산’, 레하르 오페레타 ‘주디타’ 중 ‘너 무나도 뜨겁게 키스하는 내 입술’, 시벨리우스 ‘슬픈 왈츠’, 하차투리안 ‘가면무도회’ 중 ‘왈츠’,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중 ‘피날레 왈츠’ 등 여름밤에 어울리는 밝고 유쾌한 곡들로 꾸며진다.

지난 2006년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nited Korean Orchestra, U.K.O)는 그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울산, 창원, 진주, 마산,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 등 전문 연주자 1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는 부산에서 최초로 설립된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동안 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기부, 지금까지 난치병을 앓고 있는 160여 명의 어린이를 위해 4억여 원의 금액을 전달하는 등 음악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의 협연자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피아니스트 오현정은 서정적이면서도 로맨틱한 쇼팽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을 들려준다. 그동안 해외 무대에서 각종 콩쿠르와 연주회 등을 통해 호평을 받아온 피아니스트 오현정은 미국 피바디 음대에

서 학사, 이스트만 음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고 뉴욕 Frinna Awerbuch 국제콩쿠르, Kingsville 국제콩쿠르를 비롯 캐나다의 Pacific 국제콩쿠르, 프랑스 Academie Internationale du Moulin D'Ande 국제콩쿠르 등에서 상위 입상하며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쳤다. 귀국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오현정은 현재 서울시립대, 추계예대, 동덕여대, 서울예고, 계원예고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다른 협연자인 소프라노 배수진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Lucia Popp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다. 그동안 오페라 아이다, 라트라비아타, 리골레토, 가면무도회, 사랑의 묘약, 라보엠, 나비부인, 돈 죠반니, 피가로의 결혼, 친구 프릿츠, 팔리아치, 모세, 아말과 크리스마스의 밤, 춘향전 등 수십 편의 오페라에 주역으로 출연한 배수진은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 프라이어너움대 교수로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유럽에서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입장료 균일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010-3863-3087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같이 시원한 콘서트

8.12(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김철호



태평소 진형준



소리 박성희



소리 정선희



가수 박강성



한 여름 밤의 무더위를 날려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2015년 무대가 8월 1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매년 국악의 한계를 벗어나 전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는 전 세대가 함께 호흡하는 오늘날의 생활음악, 세계음악을 표방하는 흥겨운 무대로 사랑받아왔다.

올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철호가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진형준, 수석단원 박성희, 부수석단원 정선희, 단원 송강수, 최오성, 이주현, 박재현, 가수 박강성의 협연으로 창작국악관현악에서부터 영화음악, 국악가요, 창작판소리, 대중가요까지 새로운 시도, 새로운 만남으로 시원한 국악여행을 떠난다.

시원하게 첫 무대를 열어줄 곡은 이경섭 작곡 창작국악관현악 ‘겨울나라’. 바다 속 깊게 들여다 보이는 이국적인 신비로움에 무한한 상상과 축제가 있는 그 동화 속 겨울나라를 흥겨운 선율로 풀어낸다. 이어지는 무대는 태평소와 국악관현악으로 들려주는 영화음악으로, 미국 음반계가 뽑은 20세기 최고 인기곡 1위에 빛나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 주제곡 ‘Over The Rainbow’와 트럼페터 척 맨지오니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영화 ‘산체스의 아이들’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답고 감성적인 주제 선율을 전통적인 장단을 활용해 태평소 협주곡으로 편곡, 태평소 연주자 진형준이 들려준다.

상송 ‘고엽’의 주제선율을 국악적인 느낌으로 가미한 이지영 성악 창작곡 ‘시연가’와 이경섭 곡 창작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령’은 소리꾼 박성희와 정선희가 노래한다. ‘장난감 병정’으로 유명한 가수 박강정은 그의 히트곡인 ‘문 밖에 있는 그대’ ‘장난감

병정’ ‘내일을 기다려’ 등 가요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들려준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이정호 곡 경기도당굿 장단에 의한 타악협주곡 ‘불꽃’으로 장식한다. 경기도당굿 타악장단 바탕에 경상도 메나리토리와 전라도 육자배기토리 선율로 구성된 ‘불꽃’은 영·호남지역과 서울경기지역을 아우르는 곡이다. 최근 들어 국악의 대중성이라는 이름 아래 서양 화성(harmony)에 의한 창작곡들이 많아지는 추세에 화성을 바탕으로한 선율보다는 민속악적 선율에 더욱 더 중점을 둔 곡으로, 앞으로 우리 국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한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타악단원 송강수(장구), 최오성(징), 이주현(꽝과리), 박재현(제금)이 연주한다.

입장료 R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5, 3143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8.21(금) 오전 11:00,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금난새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오보에 조정현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선물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2015년 무대가 8월 2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대표적인 간판 프로그램인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는 지난 1995년 청소년 해설음악회로 출발,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지휘자 금난새의 재미있고 친근한 해설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유의 편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가장 친근한 클래식 음악인으로 꼽히는 지휘자 금난새는 그동안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대중과 클래식을 잘 이어주는 지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금난새 지휘, 해설,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럼펫 수석 드미트리 로카렌코프와 오보에 수석 조정현의 협연으로, 로시니 ‘알제리의 이태리인’ 서곡,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치마로사 ‘오보에 협주곡’, 하이든 교향곡 제45번 ‘고별’을 들려준다.

로시니의 날카로운 기지와 경쾌한 리듬, 유려한 선율이 담긴 곡으로, 현악기와 관악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로시니 ‘알제리의 이태리인’ 서곡에 이어서는 트럼페터 드미트리 로카렌코프의 협연으로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을 들려준다. 트럼펫 협주곡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은 당시 빈 궁정의 호른 주자였던 바이딩거가 고안한 새로운 트럼펫을 위해 작곡한 곡으로 악상이 아름답고 밝고 화려해 오늘날 트럼펫 협주곡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협연을 맡은 드미트리 로카렌코프는 러시아 그네신대학 및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학교를 졸업하고 말리 주립 오케스트라 및 볼쇼이 극장 수석주자,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주자를 역임했다.

이어지는 곡은 오보이스트 조정현이 협연하는 치마로사 ‘오보에 협주곡’. 알비노니, 마르첼로의 오보에협주곡과 더불어 바로크 3대 오보에협주곡으로 꼽히는 이 곡은 이탈리아 작곡가인 치마로사가 건반악기를 위한 소나타로 쓴 곡을 아루투르 벤자민이 오보에 협주곡 형태로 편곡, 오보에 특유의 목가적인 선율이 특히 아름다운 곡으로 꼽힌다. 협연자인 오보이스트 조정현은 독일 쾰른 국립음대 Diplom 및 최고연주자과정 (KE)을 졸업하고 현재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목관앙상블 나루, 가일플레이어즈 멤버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하이든 교향곡 제45번 ‘고별’. 특히 이 곡은 그 당시 니콜라우스 에스테르하지 후작 궁정악단의 악장이었던 하이든이 휴가를 원하는 단원들을 위해 작곡한 곡으로, 마지막 4악장에서는 연주자들이 한명씩 무대를 빠져나가면서 나중에는 바이올린 주자 두명만이 남아 연주하게 된다. 마지막 곡을 통해 관객들은 음악에 얽힌 일화와 그에 따른 재미있는 체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학생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5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Ⅲ '라 트라비아타' 8.28(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윤상운

소프라노 손기슬

테너 김경여

바리톤 최상무

여유로운 오전시간에 즐기는 한낮의 음악선물 부산시립교향악단 2015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세 번째 무대 '라 트라비아타'가 8월 2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예술장르의 총집합체인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매회 대표적인 오페라 작품을 선정, 최소한의 무대 세트로 품격높은 오페라의 감동을 전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윤상운의 지휘와 해설, 창작오페라 및 다수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 연출 및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LOM(Life Of Music) 대표 임효승의 연출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로 오페라의 재미를 선사한다. 웰빙콘서트시리즈로 오랜만에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는 지휘자 윤상운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그라츠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외에도 카메라타 부산을 결성,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새로운 음악의 시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사교계 여성과 평범한 청년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통해 당시 사회의 이중윤리, 인습에 대한 저항을 담은 베르디의 걸작으로, '축배의 노래', '아, 이상해라 그이었던가', '파리를 떠나서'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를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 주인공인 비올레타 역은 '크리스탈과 같은 빛나는 고음', '불꽃같은 무대 위의 장악력'이라는 호평을 받은 소프라노 손기슬이, 테너 김경여와 바리톤 최상무가 알프레도와 제르몽 역을 각각 맡아 함께 호흡을 맞춘다.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음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23살 때 스페인의 유명 페스티벌 Festival Castell de Peralada에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 역으로 오페라 가수로서 성공적인 데뷔무대를 가진 손기슬은 그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무대에서 화려하고 깊이 있는 소리로 관객을 사로잡아왔다.

테너 김경여는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이탈리아 라티나 Ottorino Respighi 국립음악원, 로마 Arts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콩쿠르 1위, 움베르토 조르다노 국제콩쿠르 2위, 산데모 국제콩쿠르 입상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수상한 바 있다. 바리톤 최상무는 경북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탈리아 로렌조베로시 국립음악원, 로마 아레나, 아이아트, 아람, 에이아이디엠 국제 아카데미에서 전문 성악, 합창지휘, 오페라 연기과를 졸업하고 현재 아모르오페라 대표, 대구세계합창축제 예술감독, 작곡가 박태준기념사업회 추진 위원장으로 있다.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4~5, 3100

2015 제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Musical Scenery 음악에 녹아드는 부산의 풍경

9.3(목)-9.11(금)

부산문화회관, 국립부산국악원, 금정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외



플루트 타케히토 하시모토



트럼펫 옥타비아노 크리스토포리



클라리넷 로버트 보스스

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첫 선을 보인 부산국제마루음악제 2015년 무대가 9월 3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올해 부산국제마루음악제의 주제는 'Musical Scenery(음악에 녹아드는 부산의 풍경)'. 'Scenery(풍경)'이라는 주제로 클래식음악을 구성하는 다양한 장르를 통해 음악의 물결로 부산을 감싸안고 이 음악적 풍경을 통해 모든 이들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9월 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올해 개막연주는 멕시코 할리스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무대로 마련된다. 2015년 올해 창단 100주년을 맞는 할리스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멕시코의 뛰어난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조세 롤론에 의해 할리스코 주 과달라하라에서 창단되었다. '과달라하라 오케스트라 심포니'로 활동하다 지난 1988년 지금의 이름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할리스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마에스트로 마르코 패리소토를 영입하면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시적인 터치와 음악적 통찰력, 카리스마 넘치는 연주로 주목받고 있는 캐나다의 피아니스트 워니 송의 협연으로 주페 '경기병 서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 작품 18 다단조',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를 들려준다. 할리스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개막 연주에 이어 9월 6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멕시코음악으로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개막 연주에 앞서 9월 3일부터 5일까지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는 스페셜 콘서트 '오페라 해운대-불멸의 사랑'이 무대에 오른다.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인 해운대구가 기획에서부터 제작까지 맡아 화제가 되었던 창작오페라 '해운대-불멸의 사랑'은 장산자락에 위치한 장산국 설화를 바탕으로, 장산국 마지막 여왕 고아진의 불멸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개막연주에 이은 메인콘서트 두 번째 무대에서는 폭넓은 레퍼토리와 탄탄한 연주력을 갖춘, 지휘자 양승돈이 이끄는 충북도립교향악단이 무대에 선다. 9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 뤼베크국립음대 교수이자 2011년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독일문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독일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카를로스 존슨과 현재 일본 나고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이자 나고야대학에서 후배를 양성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타케히토 하시모토의 협연으로 비발디 '사계', 플루트협주곡 작품 10-3 '홍방울새'를 들려준다.

9월 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새로운 레퍼토리와 참신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최상의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강릉시립교향악단이 관객과 만난다. 상임지휘자 류석원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일본 고베 Hyogo Pac Orchestra 제1연주자, Japan Philharmonic Orchestra 객원수석연주자로 일본을 비롯해 유럽, 미국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탈리아 트럼페터 옥타비아노 크리스토포리가 스비리도프 '눈보라',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내림마장조',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을 들려준다.

9월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연주자들로 결성된 'Asia Philharmonic Orchestra of

Preview

BMIMF'가 무대에 선다. 강릉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류석원이 지휘, 일본 나고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악장인 클라리네티스트 로버트 보로스스와 나고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인 오보이스트 요스케 테라시마,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인 바수니스트 장정호, 미국 달라스 심포니, 프트워트 심포니에서 연주자로 활동 중인 호르니스트 제랄드 우드로 결성된 목관4중주단의 협연으로 시벨리우스 '카렐리아 서곡 작품 10',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K.297b',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모음곡 작품 20'을 들려준다.

9월 9일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는 올해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공동 주최한 국립부산국악원의 특별 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상임지휘자 권성택의 지휘로 부산, 영남 지역의 전통공연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이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기 협연을 통해 우리의 전통음악을 국제음악제에서 선보인다.

9월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전문성과 대중성을 가미한 다양한 무대로 주목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의 무대가 펼쳐진다. 상임지휘자 정인혁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디오니시스 루소스, 일리야스 삼소노브, 테로도르 케르케조스, 귀도 드 플라비스 등 4명의 색소폰리스트로 구성된 색소폰4중주단이 출연, 무소르그스키 '민둥산의 하룻밤', 피아졸라 '색소폰사중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탱고 모음곡' 등 금관악기 특유의 화려한 연주를 들려준다.

2015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마지막 무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맡아 화려했던 9일간의 축제의 막을 내

린다. 멕시코 주립 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세계적인 인기와 명성을 얻고 있는 마에스트로 엔리크 바티즈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클라리네티스트 로버트 보소스가 멘델스존 '핑갈의 동굴' 서곡, 모차르트 '클라리네협주곡 가장조 K.622', 베토벤 '교향곡 제6번 바장조 작품 68 전원'을 들려준다.

이밖에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해운대문화회관과 동래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사상문화회관 등 지역별 구 문화회관에서는 해외 초청연주자들과 부산음악인들의 다양한 앙상블을 들려준다. 9월 7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다케히토 하시모토(플루트), 요스케 테라시마(오보에), 로버트 보소스(클라리넷), 장정호(바순), 제랄드 우드(혼)로 구성된 BMIMF 목관5중주와 피아니스트 보리스 크랄제비치, 9일 해운대문화회관에서는 아고스티노 마르줄(튜바), 엔리코 밀리토(트럼펫), 에리카 페로니(트럼펫), 엘리나 베로니즈(트럼본), 다니엘 나보네(혼)의 이탈리아 와키 금관5중주와 피아니스트 위니송이, 9일 사상문화회관 다누림홀에서는 옥타비아노 크리스토포리(트럼펫), 히로시 하시모토(트럼펫), 쯔토무 마루야마(혼), 코리조 후지하라(트럼본), 카즈히로 야쿠(튜바)로 구성된 재팬 필하모닉 금관5중주가, 11일 해운대문화회관에서는 디오니시스 루소스, 일리야스 삼소노브, 테로도르 케르케조스, 귀도 드 플라비스로 구성된 색소폰4중주와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사파리안트가 출연,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앙상블 무대를 꾸며준다.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 516-8293~4, www.bmimf.co.kr



멕시코 할리스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강릉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2회 정기연주회

박진홍 음악평론가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던 지난 7월 10일 저녁,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512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이날 프로그램은 미국의 작곡가인 레너드 번스타인의 작품 3곡과 조지 거쉬윈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준비되었다.

그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레퍼토리는 러시아나 유럽지역 작곡가들의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클래식 형식을 취하지만 재즈와 다양한 미국적인 음악 어법을 구사하는 거쉬윈과 번스타인의 작품을 어떻게 소화해 낼지 기대가 되었다.

이날 연주는 번스타인의 '캔디드 서곡'으로 문을 열었다. 이 작품은 18세기 프랑스의 소설가 볼테르가 쓴 모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오페레타의 서곡이다. 오페레타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 서곡만큼은 널리 알려져 자주 연주되는 곡이기도 하다. 리신차오가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경쾌하면서도 역동적인 곡의 특징을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후에 들려줄 멋진 연주에 대한 암시로 충분한 연주였다.

두 번째 곡으로는 피아니스트 유영욱의 연주로 거쉬윈의 '피아노 협주곡'이 연주되었다. 유영욱 교수의 연주는 이미 국내외에서도 정평이 나 있고,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역시 처음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의 등장부터 객석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자연스레 떠오를 만큼 생기발랄한 오케스트라의 서주 이후 몽환적 피아노 솔로가 흘러 나왔

을 때에는 절로 탄성이 나왔다. 작품에 대한 집중력과 흐트러짐 없는 소리의 명확함, 음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부여 하는 손길과 자유로운 몸의 움직임이 한데 엮여 단연 최고의 찬사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거쉬윈의 이 작품은 작곡가의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이지만 다른 그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재즈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낮은 멜로디와 변화무쌍한 리듬, 오묘한 화성들이 특징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러한 거쉬윈의 감성들을 입체적으로 잘 표현하면서 독주자와의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후반부에는 번스타인의 '디베르티멘토'와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심포닉 댄스'가 연주되었다. 필자는 후반부 두 작품을 감상하면서 번스타인의 작품들이 이후 미국의 음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새삼 느꼈다. 그는 유럽의 고전음악에 대한 지휘로도 반열에 올랐지만 블루스, 컨트리, 재즈 등의 자국 음악을 통한 미국식 민족주의 음악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보았던 할리우드 영화 속 음악들을 작품의 여기저기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야구는 투수 중심으로, 오케스트라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보면 훨씬 보는 재미있다. 일반적으로 지휘자들은 자신만의 지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연주곡의 빠르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휘법이나 신체의 움직임 패턴이 어느 정도 일률적이다. 그러나 마에스트로 리신차오는 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연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춤곡을 연주할 때에는 그 춤곡에 맞는 춤사위와 같은 바통과 지휘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고, 익살스러운 장면을 연상시키는 부분을 연주할 때에는 어깨를 들썩이거나 약간의 코믹한 제스처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곡의 분위기나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가 달라질 때마다 그의 지휘의 움직임은 달라졌다. 마치 작품 하나를 한 편의 이야기로 설정하고 스토리보드에 따라 자신을 맞춰가는 듯 그의 지휘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관객들이 또 한 번 리신차오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연주였을 것이다.

이날 연주된 작품들은 고전 음악의 형식적 틀을 취하고 있으나 다양한 미국 음악의 스타일을 한껏 담고 있다. 특히 이날 연주와 같이 규모가 큰 작품의 연주에서는 내재된 변화와 역동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는 대단히 반갑고, 놀라우며 감동적인 것이었다.

작품이 담고 있는 특징들을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악기군 사이의 음향적 밸런스가 섬세하게 조직되었다. 특히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관악기와 타악기의 움직임이 매우 다이내믹했으며 현악기들은 다양한 감성의 멜로디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훌륭한 하모니를 만들어내었다. 항상 좋은 음악을 통해 부산 시민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부산시립교향악단에 감사하며, 이번 연주처럼 여러 지역과 장르, 작곡가의 음악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해 주기를 바래본다.

넘쳐나는 음식 프로그램, 불안감과 애정 결핍의 상징

남인용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먹방 또는 쿡방이라고 불리는 음식 프로그램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 tvn의 〈수요미식회〉, tvn의 〈집밥 백선생〉,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 tvn의 〈삼시세끼〉 등이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종영된 JTBC의 〈집밥의 여왕〉은 집밥 열풍을 선도했다. 음식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송사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주류 방송이었던 지상파 채널이 아니라 케이블 채널들이다. 우리나라 방송의 주도권이 이동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음식 프로그램이 우리 방송의 중심이 아닌 주변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길을 걷다보면 음식점이 가득하고, 자영업의 창업과 폐업에서 음식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방송에서도 온통 먹는 이야기들이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을 얻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먹는 장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인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동물로서 갖고 있는 본능 요인과 성장하면서 갖게 되는 이성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식욕을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본다면, 본능 중심의 프로그램이 많고 관심 또한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음식 프로그램과 같은 본능 중심의 프로그램이 지배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대세가 본능 중심의 저급한 수준으로 흐를 때, 시청자들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육강식의 논리를 내면화하게 된다. 그 결과 공정한 분배와 복지확대보다 적자생존의 경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먹을 것이 많은 세상에서 음식으로 해소되는 것은 불안감이다. 뱃속이 음식으로 가득차면 예민해지고 싶어도 예민해지기 어렵다. 우리는 불안감을 치유하는 일회용 알약처럼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다. 먹고 또 먹어서 외부 환경에 둔감해지면 긍정적인 사회 변화의 욕구는 생겨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과소비되는 음식과 음식 프로그램은 우리의 문제의식을 마비시키고 기득권 세력의 유지를 정당화하게 된다.

불안감과 더불어 요리 프로그램의 범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정서는 애정 결핍이다. 〈삼시세끼〉의 차준마나 셰프테이너라고 불리는 방송 출연 요리사들의 인기는 시청자들이 그들의 포용력과 애정을 원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잘 아는 사람의 애정 표현은 되잖아 주어야 하기에 부담스럽고 잔소리가 함께 오기에 피하고 싶어진다.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 집밥을 먹는 모임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아는 사람들 사이의 스트레스가 무척 심하고 집밥을 함께 먹으면서도 자신의 익명성이 은근히 보장되는 모임을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음식 프로그램의 인기나 집밥 모임의 활성화는 우리 사회가 그리 행복하지 않은 사회라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의 결핍 또는 부정적인 단면의 해소가 시급하다. 지금은 음식 프로그램이나 집밥 모임으로 불안감이나 애정 결핍을 해소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더 큰 사회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음식 프로그램이 불안감과 애정 결핍으로 힘겨워하는 시청자들에게 대중 요법으로 유효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불안감과 애정 결핍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송이 될 때 방송의 사회적 책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음식 프로그램 이상의 사회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3회 BNK금융그룹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연주회

일 시 | 8월 1일 토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좌석 배정)
문의 | BNK금융그룹 661-4821



BNK금융그룹이 주최하고 국내외 유명교수진의 재능기부와 참가비 전액 무료로 진행된 BNK금융그룹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연주회로, 젊은 음악인들의 꿈과 열정이 담긴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말라/교향곡 제5번 올림다 단조 제4악장

리드/엘 카미노 리얼 모차르트/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내림마장조 작품 364 1악장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4번 사단조 작품 36
• 예술총감독/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 관악 지휘/이정생 • 현악 지휘/다니엘S 김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비올리니스트 Rictor Noren

창작뮤지컬 엄마아빠, 형제는 많을수록 좋아요

일 시 | 8월 2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3일 월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예약필수)
문의 | 끼리프로젝트 988-7721



지난해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빠 흥부네와 가사와 육아에는 전혀 관심없는 놀부네를 통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기도 한 가사와 양육의 문제를 재미있게 전달했던 끼리프로젝트 창작뮤지컬 '아빠 함께해요'에 이은 '흥부 놀부 시즌 2'.

무뚝뚝한 아빠의 대표주자에서 개과천선한 아빠 놀부, 다정다감한 아빠 흥부, 천방지축 놀수이를 중심으로 흥부의 다섯남매 매력까지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북적북적 정신없지만 인간미 넘치는 흥부네의 모습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다시한번 생각해본다.

- 작/홍신주 • 연출/변진호
- 음악/강중환 • 인무/서승현
- 출연/오세윤, 안수빈, 이사라, 박준수, 김남현, 윤정아, 이창률, 이경민, 최하은 외

2015 브니엘 무용 발표회

일 시 | 8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 무용부 581-8651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창작열정과 땀이 배어있는 2015 브니엘 무용발표회.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전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 [프로그램]**
한국무용 '숲'
발레 'Stars and Stripes(성조기)'
현대무용 '레퍼토리#14 마이너스7 Minus7'
한국무용 '루나(RUNA)'
발레 'Don Quixote(돈키호테)' 등
- 한국무용 감독 및 지도/현암숙(무용부장)
 - 현대무용 안무 및 지도/박주현(현대무용 전임)
 - 발레 재구성 및 지도/김다희(발레전임)



부산문화회관 기획 피아니스트 박종화 '건반위의 이야기'

일 시 | 8월 4일 화요일 오전 11: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2~4



음악과 피아노를 따라 살아온 낭만적 음악 유목민, 천둥처럼 나타난 한국의 젊은 천재 피아니스트, 불멸의 거장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를 능가하는 피아니스트 박종화와 함께 하는 유쾌한 토크 콘서트 두 번째 무대. 일본 마이니치 음악콩쿠르 1위, 2003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 및 부조니상, 2005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피아노콩쿠르 최연소 입상 5위 및 최우수 연주자상을 수상하며 큰 화제를 모았던 박종화는 2012년 11월 첫 국내 앨범 'HEROES'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국내 활동을 시작, 솔로리스트로서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박종화는 이번 무대에서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월광', 동요 '반달', '섬집아가기', '고향의 봄' 등을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10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서여남 010-8140-4555

2002년 9월 창단 이후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나눔과 배려를 익히고 있는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제13회 정기연주회.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여름, 겨울음악캠프, 일본 기타큐슈, 중국 북경, 상해 등 해외공연과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지휘/정홍기
- 지도/한행래, 박선훈(바이올린), 김윤영(첼로) 송성인(클라리넷), 전은지(플루트)
- 협연/김동인(바이올린, 부산외국인학교 10학년) 윤예지(플루트, 구서여중 3학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한 여름밤의 음악회'

일 시 | 8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010-3863-3087



한 여름밤 무더위를 아름다운 클래식음악으로 날려줄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한 여름밤의 음악회'. 현재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고 해외 무대에서 각종 콩쿠르와 연주회 등을 통해 호평을 받아 온 피아니스트 오현정과 오스

트리아 비엔나 프리아너 음대 교수로 있으며 유럽에서 활동중인 소프라노 배우진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여름밤에 어울리는 밝고 유쾌한 곡들로 꾸며진다.

-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에프게니 오네킨 중 '폴로네이즈' 쇼팽/피아노협주곡 제2번 슈트라우스/황제 왈츠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등 수곡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인촌의 오페라 스토리

일 시 | 8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거장들의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를 엮어 만든 또 한편의 특별한 무대 스토리가 있는 오페라 콘서트 '유인촌의 오페라 스토리'.

국내 성악가들로 결성된 오페라연구회 '더 웰'이 선보이는 '유인촌의 오페라 스토리'는 기존의 오페라 갈라콘서트와는 다른 새로운 연출과 스토리가 있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한편의 오페라를 보는 듯한 특별한 감동을 전해준다.

특히 이번 무대의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인 스토리텔러 역으로는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연기자 유인촌이 맡았으며 소프라노 이명희, 정희경, 인구슬, 메조소프라노 유현주, 정유진, 최종현, 테너 김주완, 김동원, 구자현, 바리톤 임희성, 김준동 등이 출연, 클래식의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유쾌한 무대를 펼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같이 시원한 콘서트

일 시 | 8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5, 3143

한 여름 밤의 무대위를 날려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올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철호가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진형준, 수석단원 박성희, 부수석단원 정성희, 단원 송강수, 최오성, 이주현, 박재현, 가수 박강성의 협연으로 창작국악관현악에서부터 영화음악, 국악가요, 창작판소리, 대중가요까지 새로운 시도, 새로운 만남으로 시원한 국악여행을 떠난다.

[프로그램]
이경섭/국악관현악 '거울나라'
태평소와 국악관현악/Over The Rainbow
산체스의 아이들

이경섭/창작 판소리 '흥부가' 중 '박타령'
이지영/창작 성악곡 '시연가'
백규진(편곡)/박강성과 함께하는 대중가요
이정호/경기도당국 장단에 의한 타악협주곡 '불꽃'
• 객원출연/유경훈(베이스기타), 윤혁성(드럼)
이일세(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2015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일 시 |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좌석예약 필수)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8, 3147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마련한 해설음악회로 동요, 가곡, 민요, 그리고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독창과 피아노 듀오, 현악4중주, 합창 등 다양한 무대로 감상할 수 있다.

- 객원지휘/전상철(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해설/오동주
- 반주/이영옥, 이승윤(객원, 부산시립합창단 반주자)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 특별출연/정해민(소프라노), 홍지혜, 장진이(피아노 듀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현악4중주(바이올린 조우태, 이에서, 비올라 김초롱, 첼로 윤성민)



제1170회 MBC목요음악회 부산콘서트라이어와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일 시 |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부산콘서트라이어 010-5555-3825

1992년 순수 아마추어합창단으로 출발한 부산콘서트라이어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제1170회 MBC 목요음악회.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산합창제, 금정합창제, 금정문화회관 수요음악회, 부산소년소녀합창,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광복 60주년 특별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부산콘서트라이어는 '사랑의 도시락보내기', '사랑의 나눔 음악회' 등 매년 음악을 통해 이웃사랑을 펼쳐왔다.

- 지휘/최형태
- 해설/김정아
- 플루트/오영인
- 바리톤/최상재
- 피아노/배미나, 강민경



키즈샘&프렌즈 가족뮤지컬 개미와 베짚이

일 시 | 8월 13일(목), 28일(금) 오전 10:10, 11:1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키즈샘&프렌즈 02-6203-6593



우리에게 친숙한 이솝우화 '개미와 베짚이'를 새롭게 각색한 가족뮤지컬.

따뜻한 봄, 무더운 여름에도 개미들은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지만 게으른 베짚이는 시원한 나무그늘에 앉아 노래만 부른다. 추운 겨울이 되어 개미들은 따뜻한 음식이 가득한 집에서

평화롭게 겨울을 나지만 베짚이는 추위와 배고픔에 떠난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베짚이는 개미를 찾아가 따뜻하게 배짚이를 맞은 개미는 서로 우정을 나누며 또다시 봄날을 약속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짚이를 돕보는 개미를 통해 자기 이익에만 급급하고 내 몫만 챙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오늘날 현실을 되돌아본다.

부산대학교 의치대 관현악단 제4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15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대학교 의·치대 관현악단
010-6758-2875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치과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구성된 부산대학교 의·치대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

1973년 9월 열정적인 의대생들이 모여서 '부산챔버 오케스트라'로 출발, 40년의 역사를 이어온 부산대학교 의·치대관현악단은 동료 선후배들 간의 교류의 장, 대중과의 소통의 창구로 음악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K.492
하이든/오보에 협주곡 다장조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가장조 K.219
베토벤/교향곡 제4번 내림나장조 작품 60
• 지휘/김상철(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지휘자)
• 협연/안홍민(오보에), 김동민(바이올린)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일 시 | 8월 21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장기회원, 학생 2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선물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대표적인 간판 프로그램인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는 지난 1995년 청소년 해설음악회로 출발한 이후 매년 지휘자 금난새의 재미있고 친근한 해설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금난새 지휘, 해설,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럼펫 수석 드미트리 로카렌코프와 오보에 수석 조정현의 협연으로 로시니 '알제리의 이태리인' 서곡,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치마로사 '오보에 협주곡', 하이든 교향곡 제 45번 '고별'을 들려준다.

Son young il dance stage NO.2 기억의 향

일 시 | 8월 24일 월요일 오후 8:00 중극장
문의 | 손영일 010-3581-2156

2015년 제24회 부산무용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손영일 창작무용 '기억의 향'. 손영일은 그동안 2008년 제23회 무용지도자협회 현대무용 최우수상, 2008 부산무용공쿠르 은상, 2009 제18회 부산무용제 대상 및 안무가상, 2009 제59회 개천 신인 안무가전 최우수상, 2009 제18회 전국무용제 연기상 수상, 2011 제7회 부산국제무용제 AK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 입상, 제20회 부산무용제 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기억의 향을 더듬어 정춘의 시간을 돌이켜 정춘의 터널의 입구에 서있는 당신은 누구와 어떤 향을 기억하며 이 긴 터널을 통과할지, 그 '기억의 향'을 함께 찾아나선다.

• 안무/손영일



(사)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초청 소프라노 정혜민 독창회

일 시 | 8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우리아트 920-9545



서울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소프라노 정혜민 독창회. 그동안 오페라 주역, 오라토리오 솔리스트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정혜민은 지난 2000년 숙명여대 공쿠르 우승, 고태국 공쿠르(2000년), 프랑스 가곡공쿠르(2006년), 한국성악공쿠르(이대웅 공쿠르, 2007년)에서 입상한 바 있다.

• 프로그램

헨델/오페라 '줄리오 체사레' 중 '내 운명을 슬퍼하라 리라'

브람스/내 사랑은 초록빛

드뷔시/꼭두각시

마스네/오페라 '마농' 중 '안녕, 우리들의 작은 탁자여' 등 수곡

• 클라리넷/김대건

• 피아노/김영아

피아니스트 백민정 초청 독주회

일 시 | 8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 이든예술기획 02-6412-3053



2012 영국 런던의 '월드피아니스트시리즈'에 한국대표로 오프닝콘서트에 출연해 '내년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감수성, 뛰어난 테크닉이 어우러진 연주'라는 찬사를 받았던 피아니스트 백민정 독주회. 이태리 이몰라피아노아카데미와 영국의 명문 런던길드홀음악원을 졸업한 백민정은 그동안 Worshipful Company of Musicians 금메달 수상, 2012 유럽 베토벤 소사이어티 국제공쿠르, Ernesto Falla 국제공쿠르, Nuovi Orizzonti 국제공쿠르, 라흐마니노프 국제공쿠르 등에서 우승하며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백민정은 현재 서귀포 국제음악제 예술감독직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프로그램

스크랴빈/소나타 제2번 올림사단조 작품 19
바흐-부조니/사콘느 라단조 BWV 1004
리스트/소나타 나단조 S. 178 등

이정화와 춤추는 사람들 굿맛이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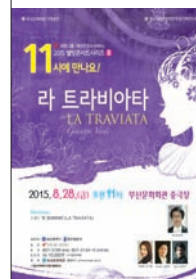
일 시 |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문의 | 이정화 010-4554-3260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제12호 진주검무 이수자, 제97호 살풀이 전수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2호 불모산 영산재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춤꾼 이정화와 한국 전통춤을 기본으로 부산, 경남 인근의 탈춤과 한국민속춤을 통해 우리춤의 정신과 아름다움을 배우고 있는 '이정화와 춤추는 사람들'의 무대. 오늘날 춤의 정신과 춤의 부활을 위한 '굿맛이 춤'을 통해 춤이 가야할 올바른 모습을 찾고 부흥을 위한 새로운 춤의 생명맛이 되고자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경기도 도당굿에서 전승된 굿춤인 도살풀이춤, 부정놀이, 재석춤, 그리고 춤의 회향을 기원하는 입춤 등 신명나는 춤판을 펼친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5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III 라 트라비아타

일 시 |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장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4~5, 3100



여유로운 오전시간에 즐기는 한낮의 음악선물 부산시립교향악단 2015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세 번째 무대 '라 트라비아타'.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윤상운의 지휘와 해설, LOM(Life Of Music) 대표 임호승의 연주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로 오페라의 재미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에서 주인공인 비올레타 역은 '크리스탈과 같은 빛나는 고음'이라는 호평을 받은 소프라노 손기슬이, 테너 김경여와 바리톤 최상무가 알프레도와 제르몽 역을 각각 맡아 함께 호흡을 맞춘다.





제20회 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30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조의진 010-9875-0700

...
 지난 1998년 YMCA 청소년오케스트라로 창단한 후 2012년 부산예술회관으로 활동무대를 옮기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매년 1~2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특별연주회,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는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자 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고 매달요양병원 봉사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전해주고 있다.

- 지휘/윤상운(동아대학교 교수)
- 협연/박시현(바이올린, 남천중 2학년)



김문주, 김진희 피아노 듀오연주회

일 시 | 8월 31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진희 010-9928-3733



...
 부산대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문주, 김진희의 듀오 무대.
 김문주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과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김진희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원,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전문연주

자과정 및 최고연주자 과정,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비제/아이들의 놀이 작품 22
 마누엘 데 피아/허무한 인생
 브람스/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34b

월드 프레스 포토 (World Press Photo) 2015

일 시 | 8월 1일(토)~30일(일) **중전사실**
 입장료 | 일반 1만원, 만13세~18세 8천원
 초등학교생 6천원
 문 의 | 온지프렌즈 02-2038-2267



...
 전 세계 포토 저널리즘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월드 프레스 포토(World Press Photo) 2015. 포토저널리즘의 전문성을 고양하고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1955년 네덜란드 왕실의 후원으로 World Press Photo 재단이 전 세계 사진기자 및 사진작가들을 대상으로 World Press Photo Contest를 실시해 그 수상작을 소개하는 '월드 프레스 포토 2015'展에서는 전 세계 132개국, 사진작가 5,692명의 작품 97,912장 중 2014년 최고의 보도사진으로 선정된 덴마크 사진기자 Mads Nissen의 러시아의 동성애 커플 'Jon and Alex'를 비롯해 수상작가 42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관람시간]
 오전 11:00~오후 8:00(입장마감 오후 7:00)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
 (1일, 8일, 15일 공연없음)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8월 22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우리나라 창작국악관현악의 선두주자로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무대.
[프로그램]
 수제천(집박/채수만, 소금/조은경, 대금/김수일, 이만형, 강영진, 피리/박춘석, 김용우, 진형준, 해금/김민정, 정수경, 박모정, 아쟁/권해정, 장구/송강수, 좌고/김인균)
 평시조 '청산리 벽계수', 여창지름시조 '청조야' (시조/정다운, 대금/한영길, 장구/박재현)
 아쟁산조 '윤윤석 류'(아쟁/홍영혜, 장구/송강수)
 수요남곡(대금/김수일, 피리/김용우, 해금/정수경, 양금/장미진, 가야금/옥경화, 거문고/이유진, 장구/최오성)
 시나위(대금/강영진, 피리/진형준, 해금/김민정, 아쟁/최영훈, 가야금/정미자, 거문고/오상훈, 장구/전학수, 징/장미진)

설장구(설장구/이주현, 최오성, 박재현, 김인균)
 • 해설/백규진



8월 29일 스트로크타악기앙상블 연주회

...
 2005년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타악기 연주자들로 결성된 후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타악기의 다양한 매력을 알려온 스트로크 타악기앙상블의 무대.
 매년 한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통영국제음악제, 부산실내악페스티벌, 안동전국타악기페스티벌 등에 참가해 깊이 있는 타악기음악의 해석과 수준 높은 예술적 표현으로 호평을 받아온 스트로크 타악기앙상블은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과 찾아가는 음악회

로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W. 로젠캄프/아프리카 블루스(African Blues)
 Eckhard Kopetzki/퓨전 말렛(Fusion Mallets)
 Emmanuel Sejourne/로사(Losa)
 아더 리프너/소호(Soho)
 폴로드 볼링/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no. 5 'Irlandaise(아일랜드 여인)'
 허비 행콕/워터멜론 맨(Watermelon Man)
 칩 코리아/스페인(Spain)
 후앙 티졸/카라반(Caravan)
 • 마림바&비브라폰/김단비, 곽선영, 이일순
 • 퍼쿠션/최대성
 • 드럼/이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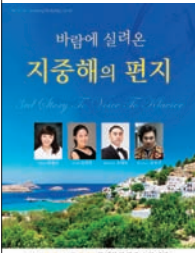


Music 음악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5일 바람에 실려온 지중해의 편지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부산, 경남피아노듀오협회, 부산위드앙상블 멤버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박정난, 반양상블 단원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임지영,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바리톤 오세민, 이태리음악연구회,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회원으로 있는 바리톤 윤오건이 함께하는 피아노 선율과 성악의 밤.

|프로그램|
 슈만/동방의 그림 작품 66
 보논치니/그대 사랑하는 영광을 위해
 토스티/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 등 수록

12일 오지윤 오보에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쾰른국립음대 대학원, 만하임 국립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객원수석으로 활동중인 오보이스트 오지윤 독주회.

오지윤은 영국 Barbiroli 오보에 국제콩쿠르 입상, 이탈리아 Amici della Musica 국제콩쿠르 2위, L'Estro Armonico 국제콩쿠르 1위, 싱가포르 Woodwind 국제콩쿠르 1위에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바흐/소나타 사단조
 생상/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166
 피아졸라/탱고모음곡 등 수록

19일 Romintic Step for Two



서울대학교와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석사, 일리노이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미국 델타주립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신정림과 연세대학교와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석,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백석대

학교에 출강중인 피아니스트 홍보원의 듀오무대.

|프로그램|
 바버/수비니어 작품 28
 슈베르트/헝가리풍의 디베르티스망 D.818 작품 54
 브람스/왈츠 작품 39
 리스트/전주곡 S.591 등

26일 피아니스트 박소미와 함께하는 세계예술가곡여행



동아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프라이너음악원, 슬로바키아 반스카비스트리차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부산반주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박소미와 테너 조현철, 바리톤 조규희, 베이스 박상진이 함께하는 세계예술가곡여행.

|프로그램|
 슈베르트/하프타는 노인의 노래 중 '고독에 몸을 맡긴 지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일이 없는 지는', '문마다 가만히 다가가'

토스티/작은 입술, 비밀, 이상
 차이코프스키/나의 보호자 나의 천사 나의 친구여,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경이로운 그대 숲이여 등 수록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신명무대
 행복한 국악나무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시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1일 국악관련학과 놀아보자-국악관련악
 피리협주곡 '자진한잎', 해금협주곡 'Verses', 성악협주곡 '아리랑연곡', 현악협주곡 '산조합주곡', 대금·이재협주곡 '민요모음', 장구협주곡 '오디세이'

8일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무형문화-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
 중요제례악, 처용무, 가곡, 영산재 작법, 아리랑,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15일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악기다-노래와 악기
 시조, 청성곡, 가곡, 수룡음, 가야금병창, 보허자, 박대성류 산조합주

22일 흐르는 듯 멈추고, 멈출 듯 흐른다-민속춤
 승무와 나비춤, 진주교방굿거리와 동래한량무, 영남입춤, 산조춤, 태평무, 밀양백중놀이

29일 궁궐의 멋과 여유를 만나다-궁중문화
 수제전, 종영전과 무산향, 취타, 궁중검무, 상량산, 포구락

2015 부산거문고악회 특별기획콘서트시리즈
 거문고 일곱 마당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일 시 | 8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거문고악회 010-4202-3003



8월에는 부산거문고악회 단원인 손지연, 배유경, 신아진이 무대에 오른다.

|프로그램|
 박경훈/댄스
 이은경/작은별
 이정성, 정인명/거문고 탕고
 박경훈/장일타홀 연기 등
 •음악감독/권은영 •기획·홍보/김현경

2015 부산기타페스티벌

일 시 | 8월 9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초중고생 5천원
 문 의 | 서승환 010-5198-0074

매년 여름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기타의 향연 2015 부산기타페스티벌. 매년 전국의 유명 기타리스트들과 연주단체를 초청,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의 기타 페스티벌로, 올해는 주최팀인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지휘/김경태)과 기타듀오 '우연', 포항기타앙상블, 기타리스트 김진택이 출연, 화려한 기타음악의 세계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사인즈 드 라 마사/새벽 종소리
 L. 버클리/기타를 위한 소나티나 작품 51
 미셸 르그랑/셀부르의 우산
 알베니스/전설 등 수록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뮤지컬배우 이건명, 배해선과 함께하는 **뮤지컬, 영화에 빠지다**

일 시 | 8월 11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2015년 색다른 만남 '콜라보레이션(협력, 협작)'을 주제로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들이 만나 색다른 무대를 선사하는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최근 '라디오스타', '복면가왕' 등 TV 출연으로 화제가 된 뮤지컬 배우 이건명과 뮤지컬계의 디바 배해선이 영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이나 뮤지컬에서 영화로 재탄생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레미제라블'의 대표곡 'One my own', '오페라의 유령' 중 'Music of the night', '맘미미아의 'I have a dream' 등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을 들려준다.

제16회 청소년 교과서음악회

일 시 | 8월 12일 수요일 오후 3:00, 5:00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호평받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교과서음악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다니엘S 김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도록 우리 귀에 친숙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작품 84
크루셀/클라리넷 협주곡 2번 시단조 작품 5 1악장
아르투니안/트럼펫 협주곡 내림나장조 1악장 등
• 협연/박지원(클라리넷, 부산예중 2학년)
한윤승(트럼펫, 부산예고 1학년)



2015 두레라움 실내악축제

일 시 | 8월 12일(수), 14일(금), 26일(수)
9월 14일(월)-15일(화)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8월 26일 문화가 있는 날 무료)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000



한여름 영화의전당에서 펼쳐지는 두레라움 실내악축제 2015년 무대. 동유럽 최고의 프라하 브라스 앙상블과 독일 다름슈타인 현대음악제에서 비상한 반향을 일으킨 작곡가 안일웅, 피아니스트 문현욱, 김연의 듀오무대, 첼리스트 양성원, 피아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 바이올리니스트 엠마뉴엘 스트로세로 결성된 트리오 오원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12일 프라하 브라스 앙상블 '프라하의 연인'
14일 작곡가 안일웅의 그룹 무지카 안 무대 퍼포먼스 실내악 '731-마루타 진혼기도 NO.2'
26일 두명의 피아니스트 문현욱, 김연 '1 Piano 4 Hands'
9/14일-15일 양성원의 트리오 오원(吾園)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전곡연주회'



한국전쟁 제65주년 기념 부산시민을 위한 렉처콘서트 **임시수도 1000일, 부산의 노래**

일 시 |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



한국전쟁 65주년을 기념해 한국전쟁 기간 동안 대한민국 임시수도였던 부산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살펴보고 이 시기 부산에서 만들어지고 부산에서 널리 들려졌던 음악을 시청각적 자료(영상, 음향)와 성악가들의 노래로 펼쳐지는 렉처콘서트 '임시수도 1000일, 부산의 노래'. 음악평론가 김창욱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강소영, 바리톤 조성빈, 피아니스트 박소미가 출연해 대중가요 '이별의 부산정거장', '굳세어라 금순아', '경상도 아가씨', 가곡 '명태', '보리밭' 등 부산을 소재로, 혹은 부산에서 작곡된 음악을 비롯해 군가, 전시가요, 동요 등 다양한 곡을 소개한다.

그림이 있는 유니세프 아동기금 음악회 **아마빌레 음악회**

일 시 | 8월 16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광민정 010-3069-9777



부산예고 재학생들이 유니세프 아동기금 마련을 위해 마련하는 사랑의 음악회 '아마빌레 음악회'. 부산예고 음악과, 미술과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들이 마련하는 무대로, 기아에 허덕이는 지구촌 아동들을 생각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마련하는 뜻깊은 무대이다.

- 출연/김상원, 김지영, 백민정, 송가은, 윤소연 (이상성악), 김민지, 박상현, 손예진(이상 피아노), 김소현(바이올린), 오정해(콘트라베이스)
- 찬조출연/이건호(성악, 3학년)
- 그림찬조/정민경, 김민경(3학년)

카메라타 부산 제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카메라타 부산 010-4313-5410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윤상운과 악장 김희정을 비롯해 실력있는 젊은 연주가 20여 명으로 결성된 카메라타 부산의 4번째 정기연주회.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들려주고 있는 카메라타 부산은 이번 무대에서 고전 및 근대 교향곡과 현재 독일 드레스덴 젬퍼 국립 오페라주역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로미 페트릭을 초청,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성악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모테트 '기뻐하라, 환호하라' KV 165
모차르트/교향곡 제31번 라장조 '파리'
모차르트/내 사랑이여, 안녕히 KV 528 등



김미정, 홍정표 제5회 듀오콘서트

일 시 | 8월 20일 목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홍정표 010-2962-0459

부산대학교 재학시절 선, 후배로 만나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태리에서 음악수업을 받고 현재 성악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부부성악가인 소프라노 김미정, 테너 홍정표의 듀오콘서트. 소프라노 김미정은 이태리 Erba국제성악콩쿠르 1위 입상 및 Voce Migliore(최고의 목소리)상을, 테너 홍정표는 이태리 Foggia 'U.Giordano' 국제성악콩쿠르 입상(특별상), P.Maggiore E. Caruso 국제성악콩쿠르(푸치니 가수상)에 입상한 바 있다. 환상적인 무대호흡을 자랑하는 김미정, 홍정표는 이번 무대에서 두사람이 평소 즐겨 부르는 레퍼토리 중심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을 들려준다.



광복 70주년 기념 2015 K-Classic Piano Tour

일 시 |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광복 70주년을 기념, 한국 클래식 음악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작곡가 100명과 연주자 100명이 뜻을 모아 마련한 '2015 K-Classic Piano Tour' 부산무대.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한복의 민화처럼 소박한 한국적 정감을 묘사한 김국진 곡 '한국의 소리'를 비롯해 작곡가 김중옥, 민남일, 김경양, 양성남, 조선희, 강은구, 김성태의 창작곡을 피아니스트 유지현, 이혜경, 강영만, 허혜정, 플루티스트 김영, 소프라노 윤진희가 들려준다. '2015 K-Classic Piano Tour'는 3월 10일 안동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용인, 제주, 수원, 서울 등 전국 14개 도시에서 총 100곡의 한국 창작 클래식 작품들을 선보인다.

- 해설/탁계석(음악평론가)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네손을 위한 꿈의 피아노 듀오

일 시 | 8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복합문화공간 무지크바움이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는 그동안 수준높은 연주를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실기수석으로 졸업하고 한국피아노학회,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MBC목요음악감상회, 금정수요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이해경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석사,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영실의 듀오무대가 펼쳐진다.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오케스트라 DMC 제2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DMC 010-8731-7928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오케스트라 DMC의 무대. 지난 1990년 2월 초대 단장 박지훈 외 6명의 의과대학 학생으로 창단한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 출발한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오케스트라 DMC는 매년 정기연주회와 음악캠프를 개최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지금의 관현악단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

- 지휘/김하균
- 단장/김연정(의학과 2학년)
- 악장/김한솔(의학과 2학년)
- 협연/이재훈(19기), 홍민우(의학과 3학년)

철학, 영화, 그리고 음악 이야기

일 시 | 8월 21일 금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정두환 011-574-0423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좋은만남'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정두환이 들려주는 '철학, 영화 그리고 음악이야기'.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은 지난 17여년간 라디오 방송에서 음악과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 진행했으며 합창단, 오케스트라, 오페라 지휘, 평론, 작곡 등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음악 작업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과 영화 속에 숨겨진 철학이아기로 관객들과 만난다.

- 지휘/정두환
- 연주/정두환의 음악친구들 오케스트라

금정문화회관 with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음악이 게임보다 재미있어요!

일 시 | 8월 2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금정문화회관이 상주단체인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마련하는 청소년음악회 '음악이 게임보다 재미있어요!'. 지난 2009년 7월 창단된 후 연간 50회 이상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가 테너 조윤환, 소프라노 이윤정의 협연으로, 메모리, 오 솔레미오, 하울의 움직임은 성, 랫잇고 등 오페라, 뮤지컬, 영화 속에 등장하는 우리 귀에 친숙한 레퍼토리로 청소년들의 음악적 감수성을 키워준다.

- 지휘/홍성택
- 협연/테너 조윤환, 소프라노 이윤정



스토리텔링 콘서트 마법에 걸린 피아노

일 시 |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한여름에 펼쳐지는 동화같은 클래식 '마법에 걸린 피아노'. '퐁텐블로 숲의 전설', '달빛에 휘감긴 마법의 성', '마법의 성안에서의 축제', '춤추는 피아노' 등 4가지 주제의 스토리텔링으로 예술적 감성을 자극하는 이번 무대는 아코디언, 신디사이저, 더블베이스의 아름다운 앙상블과 소리 변화에 따른 그래픽적 시각화로 표현되는 사운드 디자인, 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예술융합 콘서트 형식으로, 인터랙티브와 3D 맵핑 영상으로 꾸며지는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 작 · 편곡 및 3D 맵핑/김병기
- 신디사이저/이혜영
- 아코디언/홍기범
- 더블베이스/조영훈

트리오 제이드 초청연주회

일 시 | 8월 23일 일요일 오후 5:00 소민아트센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강인희 010-5245-4366



올해 2월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열린 제9회 슈베르트 국제 실내악 콩쿠르 피아노 트리오 부문에서 한국 인팀으로서는 최초로 1위 없는 3위에 입상해 화제를 모은 트리오 제이드 초청연주회.

2005년 프랑스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에서 실내악 전문사과정을 함께 수학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 첼리스트 이정란, 피아니스트 이효주로 결성된 트리오 제이드는 실내악의 대중화와 전문화에 앞장서는 젊은 앙상블로,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이드'는 고대로부터 동양에서 귀히 여겨온 대표적인 보석인 옥을 뜻하며, 동양을 대표하는 보석 같은 연주자들이 연마하여 광택이 나는 음악 세계, 그리고 음악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와 당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연주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베르니니, 음악으로 만나다

일 시 | 8월 25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금정문화회관이 매월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마련하는 브런치 콘서트 8월 무대. '음악으로 만나는 명작시리즈'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로크 문화의 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건축가 베르니니와 함께 그 시대 음악을 만나보는 자리로,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유현준 교수와 동의대학교 작곡과 정희영 교수가 건축과 음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바흐의 'Aria on G string', 'Fugue in g minor' 등 월드 브리지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바로크시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 지휘/박상민
- 연주/월드브리지 챔버오케스트라(악장/백재진)
- 진행/유현준, 정희영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8회 프롬나드콘서트

일 시 |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126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경제를 살피볼 수 있는 역사관 '부산챔버스퀘어'를 알리고자 마련한 프롬나드 콘서트 7번째 무대.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클래식곡들로 관객들을 찾아가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제1번 작품 136 1악장 비발디/'사계' 중 '여름'
 슈트라우스/트리치 트리치 폴카 작품 214 등 수록



음악풍경 청년음악가 시리즈 9, 10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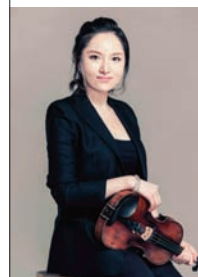
일 시 |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00
 소민아트센터 아트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소민아트센터 991-2200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 987-5005

역량있는 신예 음악가들을 발굴, 데뷔무대를 갖게 하는 청년음악가 시리즈 8월 무대. 8월부터 서면 소민아트센터 아트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 잔 바이너 국립음악학교, 스킨라 칸토롬 사범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프랑스 레오폴드 벨랑 국제콩쿠르 1위에 입상한 플루티스트 황미리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정명아가 출연한다.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정다희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그동안 수많은 실력있는 연주자들과 함께 부산의 살롱 문화를 이끌어온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복합문화공간 무지크바움 이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는 그동안 수준높은 연주를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미국 보스턴음대 석사 및 연주자 과정, 미시간 주립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MSU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정다희의 무대로 마련된다.

프로그램
 코다이/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아다지오
 그리그/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작품 45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 등

- 피아노/김영실



글로벌 행복음악회

일 시 | 8월 30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글로벌장학재단 기금)
 문 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국제 수준의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인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 글로벌 행복음악회. 그동안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을 무대에 올려온 글로벌 행복음악회는 글로벌장학재단이 젊은 신인 음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야심차게 기획한 무대로, 신인음악인들의 무대 경험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대중들에게 알려 글로벌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창작오페라 해운대-불멸의 사랑

일 시 | 9월 3일-4일 목-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인 해운대구가 기획에서부터 제작까지 맡아 화제가 되었던 창작오페라 '해운대-불멸의 사랑'. 장산자락에 위치한 장산국 설화를 바탕으로, 장산국 마지막 여왕 고아진의 불멸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해운대-불멸의 사랑'은

- 소프라노 김유섬, 바리톤 박대용, 테너 김지호 등 국내 최정상급 오페라 가수들이 출연,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 작 · 편곡/백현주
 - 총 음악감독, 지휘/백진현
 - 대본 · 연출/김지웅 · 합창지휘/조윤희
 - 연주/부산오페라심포니오케스트라
 - 출연/김유섬, 김아름, 김경, 김지호, 박대용, 안세범, 장은영, 손혜은, 박상진, 김경대 외

Play 연극

힐링뮤지컬 언젠가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일 시 | 1월 7일(수)-8월 30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 · 공휴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가운아트홀 1관
 입장료 | 일반석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만 2천원)
 문 의 | (주)문화락 1600-1602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감동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연극무대에 이어 2부 콘서트에서는 관객 모두가 참여하는 열정적인 스탠딩 콘서트 펼쳐진다.

- 작 · 작사 · 작곡 · 연출/김민

연극 팝콘

일 시 | 6월 5일(금)-8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1만 3천원, 주말 1만 5천원)
 문 의 | ㈜플레이더부산 1600-0316



가난하지만 유쾌한 연극배우들의 다양한 일상을 그린 B급 코미디극 '팝콘'. 현실과 마주한 가난한 두 연극배우 칠성과 연제는 부모님께 결혼허락을 받기 위해 연제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온다. 결국 연제의 부모님에게 결혼허락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은 해변가 포장마차에서 지금은 성공한 한류스타이자 연제의 첫사랑인 스파크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가 찍고 있는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 연극 '팝콘'은 어느 청춘들처럼 막막한 현실세계와 마주한 연극배우들의 고군분투기를 웃음과 해학으로 유쾌하게 그려낸다.

- 작 · 연출/이성욱

연극 러브액츄얼리

일 시 | 6월 5일(금)-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축제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1만 3천원, 주말 1만 5천원)
 문 의 | ㈜플레이더부산 1600-0316



사랑에 대한 3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연극 '러브액츄얼리'. 따끈따끈한 연애 100일 커플에서 술술 권태기에 접어드는 1,000일 커플, 연인이기 보다는 이제는 가족같은 기간에 따라 변하는 연 인간의 감정변화를 유쾌하게 보여주는 이번 작품은 지난 1990년대를 추억할 수 있는 무대와 다양한 소품 외에도 19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의 노래가 관객들을 아련한 추억 속으로 이끈다.

- 연출/이성호

로맨틱 코미디극 씬남쌈녀

일 시 | 6월 23일(화)-9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가운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만 2천원)
 문 의 | SM기획 1600-1602



꿈을 가지고 서울로 향하는 첫날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하는 정미, 우연히 모르는 남자 태일을 만나면서 결국 그들은 동거하는 상황까지 이르는데, 도시남자 태일과 시골여자 정미, 과연 이들은 잘 지낼 수 있을까... 달라서 더 흥미로운 두 남녀의 아슬아슬한 동거 이야기가 관객들의 잠들어있는 연애세포를 깨워준다.

- 작 · 연출/전정민
- 출연/김동현, 장선아, 조충범



연극 극적인 하룻밤

일 시 | 6월 25일(목)~8월 3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친했던 선배 형과 사랑했던 옛 애인의 결혼식에 쓸쓸한 기분으로 참석한 정훈은 뷔페식당에서 만난 이상한 여자 시후와 실랑이를 벌이다 각자의 옛 애인이 서로 눈맞아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설상가상 정말 죽고 싶으며 시후는 정훈에게 하룻밤만 같이 보내자고 보채고, 시후는 그녀의 엉뚱한 매력에 자신도 모르게 호기심이 발동해 하룻밤을 허락하는데... 옛 애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두 남녀의 하룻밤 원나잇 스탠드에서 시작된 발칙한 사랑을 통해 사랑에 배신당한 여자화 다시는 사랑을 믿지 않는 남자가 서로의 빈 가슴을 채워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로맨틱 코미디극 '극적인 하룻밤'.

- 작/황윤정
- 연출/이재준

연극 몽타주

일 시 | 7월 9일(목)~9월 13일(일) 오후 5:00, 8: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사실적이면서도 박진감 넘치게 펼쳐지는 연극 '몽타주'. 아버지를 죽인 연쇄살인범을 쫓기 위해 천재적인 몽타주 회가로 성장한 서정민과 연쇄살인범 유홍준, 연쇄살인범으로부터 서정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력반 형사 조상철과 서정민의 친오빠

서정훈의 치밀한 추리게임에 그린 '몽타주'는 개성넘치는 인물들의 숨겨진 사연이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서서히 드러난다.

지난 2008년 한국 최초의 추리소설인 이혜조의 '쌍옥적'(1908년) 탄생과 한국추리 문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완성된 '몽타주'는 지금까지 전국 25개 도시 순회공연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 작·연출/김세환

행복찾기프로젝트 클라우드 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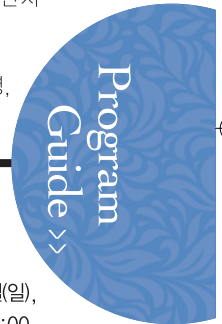
일 시 | 7월 16일(목)~8월 2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극장 해프닝(구 가온아트홀 3관)**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청소년 1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만 3천원)
 문 의 | 시나위공연기획단 070-4618-2789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개개인들이 소통의 부재로 겪게 되는 자아의 상실과 고뇌, 치유를 그린 연극 '클라우드 나인'. 고즈넉한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담배 가게, 청자와 공씨 할매는 그 곳에서 서로를 다독여 가며 살고 있다. 그 마을의 듄직한 우체부 한산도는 오늘도 청자의 가게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 봄이 되면 공공 언강물이 녹듯이 청자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 가는데...

이번 작품은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고 정신적인 치유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 연출/조기왕
- 출연/김혜정, 염창완, 배성윤, 김하영, 정미영, 김영광, 노현수



연극 라이어 투어

일 시 | 7월 17일(금)~9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원(7/16일까지 조기예매 시 30% 할인, 학생 50% 할인)
 문 의 | (주)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소심한 은행원 영호의 생일날, 택시를 타고 가던 영호는 300억원이 든 야쿠자의 가방을 자신의 가방과 뒤바꿔 들고온다. 야쿠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영호와 안절부절 못하는 아내, 그를 의심하는 형사, 잠시 잊혀졌던 야쿠자 등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영호를 괴롭히고 잠시 상황을 무마하려고 시작한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영호를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라이어 시리즈 중 가장 진한 웃음과 독특한 캐릭터가 눈에 띄는 '라이어 투어'는 누구나 꿈꾸는 일확천금의 행운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유쾌하게 담아낸다.

연극 작업의 정석

일 시 | 7월 30일(목)~10월 2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손예진, 송일국 주연의 동명 영화를 각색한 작품으로, 2012년 6월 첫 공연 이후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대학로를 대표하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으로 자리잡은 연극 '작업의 정석'. 소위 연애의 '고수'를 자처하는 두 남녀가 우연히 마주치면서 벌이는 밀고 당기는 연애 명승부를 통해 관객들에게 작업의 비법을 전수하는 '작업의 정석'은 고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성의 심리를 코믹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그려낸 로맨틱 코미디극이다.

- 출연/김대우, 황선주, 한세희, 황재훈, 장우진, 도우리, 김민지

어린이 뮤지컬 아채친구 야미

일 시 | 8월 1일(토)~2일(일), 15일(토)~16일(일), 29일(토)~30일(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일요일 오전 11:00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9천 8백원)
 문 의 | (주)문화락 1600-1602



재미나는 노래와 율동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답하는 즐거운 뮤지컬 공연 '아채친구 야미'. 햄버거, 소시지, 콜라, 피자 등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부끄럼쟁이 당근과 사랑스러운 울보 양파, 울통불통 착한 감자, 맛쟁이 신사 버섯 등 야채친구들이 편식하지 않고 건강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 작·연출/이옥현





감각이와 함께 떠나는 오감만족

일 시 | 8월 9일(일), 23일(일) 오전 11:00
 오후 1:00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9천 8백원)
 문 의 | (주)문화락 1600-1602



게임과 만화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에게 신기함, 호기심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자극'들을 통해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 모두를 만족시키며 아이들이 잊고 있었던 순수한 '감각'들을 되찾아 주기 위해 마련한 오감만족 미술여행.

하루 종일 멍하게 앉아 게임만 하는 철수. 게임 속 세상에 빠져 눈도 나빠지고, 밥맛도 없고 과자만 집어먹는다. 부모님이 불러도 대답 하지 않고 게임만 열중하다 밤늦게 잠이 들었는데... 철수는 꿈속에서 예쁜 토끼 친구 '감각이'를 만나게 되고 함께 꿈속을 여행한다. 시각을 활용한 화려한 오프닝으로, 물건 맞추기를 통한 촉각, 음료를 만들고 쌀알이 뿔튀기가 되는 마술을 통한 미각과 후각, 소리를 맞추고 소리를 이용한 미술로 청각을 느낄 수 있다.

창작뮤지컬

엄마야, 형제는 많을수록 좋아요

일 시 | 8월 12일-13일 수-목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무료(예약필수)
 문 의 | 까리프로젝트 988-7721



놀부네 외동이 놀숙이의 동생만들기 대작전 '엄마, 아빠! 형제는 많을수록 좋아요!'. 놀숙이는 집에 와도 놀거리가 없다. 엄마, 아빠와 노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놀숙이는 흥부네로 자주 놀러간다. 혼자 자라서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하려는 놀숙이

와 함께 하면서 흥부네 다섯 아이들은 놀숙이에게 동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놀숙이 동생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난해 창작뮤지컬 '아빠와 함께해요'를 통해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빠 흥부네와 가사와 육아에는 전혀 관심없는 놀부네를 등장시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기도 한 가사와 양육의 문제를 재미있게 전달했던 까리프로젝트는 이번 무대에서는 인간미 넘치는 흥부네의 모습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연극 맛의 기억

일 시 | 8월 14일(금)-9월 29일(화)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AN아트홀, 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1만 3천원, 주말 1만 5천원)**
 문 의 | (주)플레이더 부산 1600-0316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 '집 밥'을 소재로 한 연극 '맛의 기억'. 기억을 잃어버린 채 바닷가를 떠돌고 있던 여방, 그런 여방을 미행한 수상한 그녀 수정. 사람 감각 중 미각이 기억에 제일 오래 남는다는 여방은 부산에 유명한 먹거리는 죄다 먹었지만 기억을 찾지 못한다. 그런 여방을 보며 수정은 집 밥으로 여방의 기억을 찾으려고 하는데... 수정은 과연 여방의 기억을 찾아줄 수 있을까? 연극 '맛의 기억'은 부산 사람들에게는 친근하고 타지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부산 앞바다를 배경으로, 관객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간다.

- 작/이민혁
- 연출/이성호

연극 하녀들

일 시 | 8월 20일(목)-3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문화기획 ACTs 010-9701-0712

프랑스의 부조리작가 장 주네의 대표작을 연출가 김만중이 새롭게 해석한 연극 '하녀들'.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욕망을 연극놀이라는 환상과 착각을 통해 꿈꾸는 자매 쉘랑주와 끌레르의 이야기를 그린 '하녀들'은 부조리한 세계를 대변하는 상징적 이면서도 기호적인 인물이 아닌 부조리한 세계를 처절하게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실적인 인물로 그려냈다.

문지연, 이진희, 안성혜 등 개성 강한 세 명의 여배우가 출연, 우리 시대의 '하녀들'을 그려낸다.

- 작/장 주네
- 연출/김만중
- 출연/문지연, 이진희, 안성혜



2015 동래 여름공연 예술축제 한 여름밤의 꿈

일 시 | 8월 21일-23일 금-일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동래구민은 5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20



21일 제주극단 세이레 '행복한 가족'

제삿날 오랜만에 다함께 모인 가족, 그런데 좀 이상하다. 이 가족 과연 행복한 걸까? 휴먼 코믹 요절복통 생소 '행복한 가족'.

22일 클래식 라디오 '한 여름밤의 클래식'

현악 8중주와 피아노, 드림의 기분 좋은 만남이 펼쳐지는 라디오처럼 친근한 한 여름밤의 클래식 무대.

23일 극단 맥 '개똥할매'

동해안 별신굿과 동래야류 등 우리의 전통연희와 민속춤, 판소리, 민요 등을 담은 토종연극으로, 부산 지역 극단 최초로 2012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과 프랑스 아비뇽OFF 페스티벌에 참가한 바 있다.

- 작·연출/이정남

Dancing 무용

국립부산국악원 상설공연 왕비의 잔치

일 시 | 7월 28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그랜드호텔 전용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해운대그랜드호텔 내에 전용극장을 마련한 국립부산국악원이 첫 번째로 마련한 상설공연 '왕비의 잔치'.

궁궐에서 이뤄졌던 전통 종합예술인 궁중정재(宮中正才)와 왕비의 대례복 퍼포먼스, 민간 전통예술을 담은 무대로, 태평성대를 기

원하는 백성의 제사에 하늘이 왕과 왕비를 내려 보내고, 고요한 궁궐 아침 왕비가 대례복을 입고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중모제례악의 춤인 일무를 비롯해 학춤, 선녀춤, 무산향, 춘앵전, 수영야류, 동래야류, 고성오광대, 통영오광대 등 여러 지방의 무형문화재를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다.





2015 아이스 발레 **백조의 호수**

일 시 | 8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19일 수요일 오후 3:00,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000



러시아 정통 아이스발레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백조의 호수'.

아이스링크로 바뀐 공연장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고전 발레를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무대로, 토슈즈 대신 피겨스케이팅을 신은

무용수들이 얼음 위에서 마치 날개를 단 듯 역동적이며 화려한 기술과 함께 기존의 아이스 쇼와는 또 다른 정통 발레 공연 자체로서의 우아함을 함께 선보인다.

지난 1998년 처음 한국을 찾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은 그동안 3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하며 매년 매진사례를 기록해왔다.

제57회 부산시 문화상 수상기념 **김명자의 춤**

일 시 | 8월 22일 토요일 오후 6: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이민아 010-5051-0242
 최지은 010-4858-2315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교육 조교,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전수교육 조교로, 지난해 제57회 부산문화대상을 수상한 원로춤 김명자의 춤.

2004년 부산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명자는 (사)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 지회 부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우봉 이매방춤보존회 회장으로 있다.

[프로그램]

- 검무, 초립동(草笠童), 입춤(허튼춤), 장검무, 살풀이춤, 대감놀이(무당춤), 승무
- 원작/이매방
 - 예술감독 및 구성/김명자
 - 특별출연/이광수
 - 연출/정신혜
 - 출연/우봉이매방춤보존회 회원, 정미숙, 정해림, 윤여숙, 이윤혜 외

Movie 영화

2015 제10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달라도 좋아(We are All Un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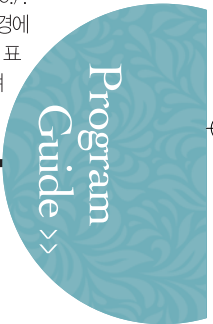
일 시 | 7월 30일(목)~8월 4일(화) **영화의전당, 부산콘텐츠코리아랩,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입장료 | 프리패스 ID카드 2만 5천원, 일반상영작 5천원(부대행사 관람료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문 의 |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 743-7652, www.biky.or.kr



발칙하게 생각하고, 당차게 말하며, 영상을 통해 거침없이 표현하는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들의 영화축제 '제10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

올해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의 주제는 '달라도 좋아(We are All Unique!)'.

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다양한 영화적 감수성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전 세계 20여 개국 100여 편의 작품이 초청, 상영된다.



Concerts 콘서트

재즈 와인에 빠지다 73rd Concert **이선지 TRIO+**

일 시 |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3만 5천원, S석 2만 5천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623-0678



한달에 한번 재즈와 와인이 만나는 달콤한 무대 '재즈 와인에 빠지다' 73번째 무대.

세르조 레오네 감독의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등 '스파게티 웨스턴', '미션', '시네마 천국' 등 세계적으로 약 5000만 장, 국내에서는 약 200만 장의 앨범이 팔린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를 재즈로 만나보는 시간으로, 2015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재즈앨범상을 수상한 재즈피아니스트 이선지 재즈트리오의 무대로 마련된다.

동래문화회관 개관 16주년 기념 **가요계 원조 디바 윤복희 콘서트**

일 시 | 8월 15일 토요일 오후 4: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동래문화회관 개관 16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가요계 원조 디바 윤복희 콘서트. 코미디언 윤부길의 딸인 윤복희는 1952년 5세의 어린 나이로 뮤지컬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해 데뷔한 후 17세 때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 루이 암스트롱의 모친으로 유명해져 루이 암스트롱

트롱 내한 공연 당시 그와 인연을 맺으면서 20년간 해외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 대상을 받은 '여러분'을 비롯해 '웃는 얼굴 다정해도', '나는 어떡하랴' 등 그의 히트곡들을 들려준다.

극단 새벽 별실 '인디밴드ACT'와 함께하는 콘서트 **우공이산 III ...그렇게 산을 옮겼다**

일 시 | 8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극단 새벽 245-5919

대안문화센터 '효로인디아트홀'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 콘서트 인디밴드ACT와 함께하는 '콘서트 우공이산 III - ...그렇게 산을 옮겼다'.

연극인, 음악인들로 결성된 극단 새벽 별실 '인디밴드ACT'는 2012년 출범 이후 세상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로 관객과 만났다.

- 연출/이성민
- 출연/보컬 유미희, 드럼 이현식, 정주리, 신디 차 동희, 어쿠스틱기타 이종화, 일렉기타 변현주, 베이스기타 김아람
- 게스트 협연/아쟁 이지연





Event 행사

예술의 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콘서트
INTO THIN AIR-증발

일 시 | 8월 3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전화예약 필수)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우수 공연을 스크린을 통해 감상하면서 아티스트들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은 물론이고 객석에서 볼 수 없는 무대 구성구석과 공연의 흥미로운 뒷이야기까지 만나 볼 수 있는 예술의 전당 'SAC on Screen'을 부산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의 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 콘서트.

국립현대무용단의 'INTO THIN AIR-증발'은 눈앞에 보이던 것을 순식간에 감쪽같이 사라지게 하는 마술 용어 'Into Thin Air'처럼 물질로 가득 차 있지만 속은 비어있는 현대사회의 공허를 이스라엘 안무가 이디트 헤르만이 만화적 상상력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8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무지크바움에서 2013년부터 매월 진행중인 클래식과 재즈 매니아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8월 무대.

프로그램

- 1부 베르디, 아이다, 베르겐츠 오페라 페스티벌, 2009
닐스 란드그렌 핑크 유니트, 재즈 발타카, 2010
- 2부 로베르토 폰세카, 레버쿠젠, 2009
파울로 프레주, 오마르 소사, 밀라노 블루노트 실황, 2012
핑크 마티니, 스위스 바젤, 아보세션, 2011

• 기획 및 진행/손명균, 박형석



해설이 있는 월드뮤직 음악감상(11)
Gypsy음악과 Flamenco

일 시 | 8월 19일 수요일 오후 7:00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입장료 | 무료(자료집 제공, 부산시민공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접수)
문 의 | 최정욱 010-3853-6634
cafe.naver.com/yefeel

월드뮤직 해설가이자 클래식 음악 애호가인 최정욱이 2014년 10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월드뮤직 음악감상회. 제3세계 민족음악을 통해 클래식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역사의 생명력과 민족들의 삶의 노래를 함께 공유한다.

프로그램

- 1부 편집영화 '노들담의 고풍', '집시의 시간' 감상
- 2부 Gypsy음악과 Flamenco 해설 및 감상
- 기획 및 진행/ 최정욱(월드뮤직 음악작가 및 해설가)



Display 전시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기획전
우리 동네 우리 집

일 시 | 4월 10일(금)-8월 2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0-4205~7

오드리 햅번, 뷰티 비욘드 뷰티

일 시 | 5월 9일(토)-9월 6일(일)
영화의전당 특설전시관
입장료 | 일반 1만 2천원, 대학(원)생 1만원
청소년 8천원, 초등학교 이하 6천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부산사진의 재발견 연계기획전 **김복만**

일 시 | 6월 6일(토)-8월 19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이상적인 사고와 치밀한 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사진적 구성과 표현을 자유자재로 펼친 김복만 작가의 작품전.

The New Wave in Korean Photography 1988-1998
DAE SOO KIM

일 시 | 6월 6일(토)-8월 19일(수)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744-3924

지난 1988년 제 1세대 유태파로 분류되는 김대수 작가의 초기 작품을 통해 한국 현대사진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변모하고 확장되어 왔는가를 가능해본다.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제41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일 시 | 7월 24일(금)-8월 2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문 의 | 부산미술협회 632-2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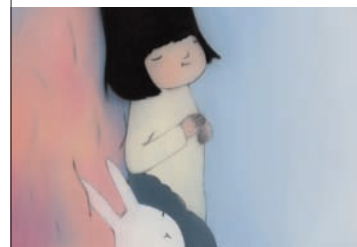
피규어&영화소품 체험전

일 시 | 7월 24일(금)-8월 30일(일)
영화의전당 두레리움 광장
입장료 | 균일 1만 2천원
문 의 | 부산영화관광축제 사무국 747-8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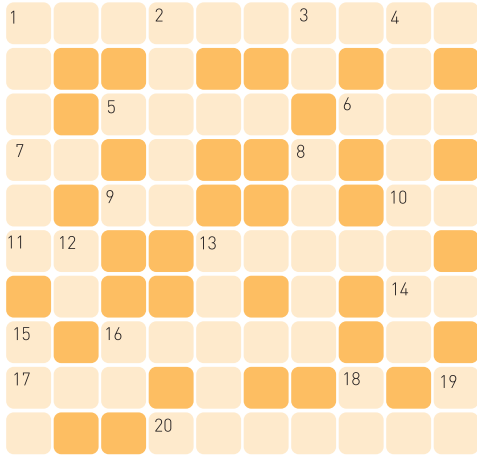
김한나 개인전 **기막히게 유창하게**

일 시 | 7월 29일(수)-8월 19일(수)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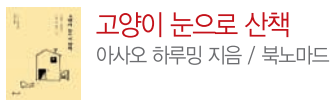
몽환적이면서 동화같은, 토끼가 주인공인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한나 작가의 신작 전시회로 환상이자 분신인 토끼와 작가의 일상 이야기를 그린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가로열쇠

- ① 지휘자 금년새를 음악감독으로 세계 각지에서 활발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내악팀들이 참가하는 부산문화회관 주최 클래식 음악축제. 올해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 ② 오스트리아의 입제에 대항하는 0000의 투쟁을 그린 슬러의 희곡을 오페라로 제작한 로시니의 마지막 오페라.
- ③ 판소리에서 창자(창창)가 소리를 하다가 한 대목에서 다른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유리듬으로 사설을 엮어나가는 행위.
- ④ 짧고 통통하게 생긴 화살을 손으로 던져 과녁에 맞추는 경기로 언제 어디서나 간단한 도구만 가지고 즐길 수 있다.
- ⑤ '장편(掌篇)소설' 또는 '엽편(葉篇)소설'. 소설의 길이로 분류하자면 단편소설보다 더 짧은 분량으로, 대개 인생의 한 단편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그리는데 유머, 풍자, 기지를 담고 있다.
- ⑥ 대한민국의 수도.
- ⑦ 신령(神靈)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거나, 돌아간 이를 추모하는 의식.
- ⑧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거나 바보스러워 보일 것 같은 사회 불안을 경한한 후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능력이 저하되는 정신과적 질환. 사회공포증.
- ⑨ 바람, 물, 눈, 얼음 등의 적용에 의해 지표의 암석이 깎이는 작용.
- ⑩ 제우스와 알크메네의 아들로, 그리스 신화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아버지 제우스의 총애를 받아 광범한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수많은 위업을 세우면서 올림포스의 신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 ⑪ 쿠바의 수도. 쿠바섬의 북서 해안, 멕시코만(灣)에 면하는 항구도시로, 카리브해(海) 지역 최대의 도시이다.
- ⑫ 르네상스(기) 프랑스의 의사, 철학자, 점성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후원자인 앙리 2세의 죽음, 생바르텔레미의 학살, 프랑스혁명, 니콜레옹의 등장까지 예언했으며, 특히 현존하는 예언서 968편이 1970년대 후반에 번역되어 나오면서, 세계 각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0000000의 예언' 붐을 몰고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세로열쇠

- ① 세계적인 관광지 해운대해수욕장을 포함, 절경을 자랑하는 부산의 해수욕장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이색적인 체험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여름 해변축제. 20회를 맞는 올해는 8월 1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다.
- ②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일과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 '죽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속어인 'kick 더 버킷(kick the bucket)'으로부터 만들어진 말이다.
- ③ 스페인계 국가에서 사용되는 화폐 단위.
- ④ 뉴욕 5번가에 있는 보석상 티파니를 세계적인 상징으로 만든 영화로, 뉴욕의 상류사회에 진입하기를 열망하는 밀바닥 인생의 삶과 애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헨리 마티니가 작곡하고 여주인공인 오드리 헵번이 부른 주제가 '문 리버(Moon River)'가 유명하여, 1962년 아카데미상에서 작곡상, 편곡상,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 ⑤ 영국의 아동문학가인 파멜라 린던 트레버스의 원작을 스크린에 옮긴 뮤지컬 영화로, 배우 줄리 앤드루스가 마술사 모모 000000로 등장한다.
- ⑥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곡 중 하나로, 음악으로 사계절의 변화를 그려낸 비발디 협주곡.
- ⑦ 고대 그리스 3대 비극시인. 대표적으로 '이아이스', '안티고네', '오이디푸스왕', '엘렉트라' 등이 있다.
- ⑧ 간반이 달린 타현악기·화성악기, 선율악기의 두 요소를 갖추고 있는 민중 악기로 널리 쓰이고 있다.
- ⑨ 열대성 관목인 로소니아 이너미스(Lawsonia inermis L.)의 잎을 따서 말린 다음 기름으로 만든 염색제. 오래전부터 잎은 모발 염색이나 문신 등에 사용하였고, 꽃은 향수의 원료로 이용하였다. 인도에서는 멘디(mehndi)라고 하여 여성들의 손이나 발에 이것으로 문신을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 ⑩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자라는 뜻으로, 부처, 불타라고도 한다.
- ⑪ '애플을 설립, 세계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았던 스티브 잡스의 삶을 그린 조슈아 마이클 스티븐 감독, 애쉬튼 커처의 2013년 영화.

지난호 정답

악	기	가	죽	이	야	기		동
장		화			마		피	아
		이	만	희		카	프	카
운		사		개	시		소	동
명	왕	성		선		중		가
	인		지	문		세	레	머
쉬	박	지			핀		미	니
	사		아		란		제	
답			사	우	디	아	라	비
사	통	팔	달		아		블	바

7월호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영수(해운대구 마린시티로) 노근희(영도구 태종로) 박미나(금정구 오륜대로) 윤재희(기장군 차성로) 하정우(남구 유엔로)	큰집 식사권	곽기만(영도구 일산봉로) 곽중인(북구 화명신도시로) 김은정(중구 대청로) 박원방(강서구 신항남로) 송말남(연제구 중앙대로)
문학동네 도서	김순태(서구 총무대로) 박진우(금정구 오륜대로) 유은주(사하구 고정로) 정윤경(사하구 사리로) 최은희(영도구 절영로)	조은극장 초대권	김경미(남구 장고개로) 백영선(연제구 법원로) 오은택(연제구 중앙대로) 이건우(해운대구 재반로) 이영진(사상구 새백로)
옐로인 플라워 꽃다발 증정권	김수현(동래구 복천로) 이진영(남구 유엔로)	*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해 꽃다발 증정권을 드립니다.	



New BOOK... 박현주 북칼럼니스트



❖ 동해남부선, 이곳은 당신 구간

강영환 외 지음 / 전망 / 110p / 8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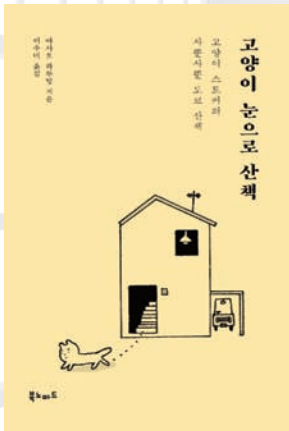
“푸른 파도 이끌고 오르내리기 팔십 평생/ 굽어 휘어진 허리론 더는 달릴 수 없어/ 목침 베개에 두 다리 길게 뻗고/ 솔바람 파도소리 위에 누웠는데/ 언제나 돌아누운 등 서럽고 애틋하여/ 부지할 명목을 잃고 옆구리 들이친 바다/ 생사경계를 굿듯 수평을 잡고 귀엣말 한다.”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로의 운명을 읊은 박정애 시인의 ‘동해남부선 철로 위에 서면’의 첫 번째 연이다. 동해남부선은 부산 부산진구와 경북 포항 사이를 잇는 철로이다. 현재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진행 중이라 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기차가 달리지 않는 폐선 부지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해운대 미포와 옛 송정역을 잇는 철로 4.8km는 바다와 접하여 천혜의 풍경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이 폐선 부지를 둘러싸고 보존과 개발의 논리가 충돌했다. 그런 가운데 부산작가회의 소속 시인 47명이 철길구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강렬한 염원을 담아 사화집 <동해 남부선, 이곳은 당신 구간>을 발간했다. 페이지를 넘기면 녹슨 철로, 기차에서 보던 바다, 철로를 걷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차창 밖 풍경처럼 펼쳐진다. 철길 하나에 이만한 시가 바쳐진 적이 또 있었던가.



❖ 조선 시대의 삶, 풍속화로 만나다: 관인, 사인, 서민 풍속화

윤진영 지음 / 다섯수레 / 176p / 1만 9천 800원

그림을 통해 조선 사회를 살아간 선조들의 예술, 문화를 만나는 기획시리즈 <아름답다! 우리 옛 그림> 네 번째 책. 이번 책에서는 풍속화를 통해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조선사회를 살아간 선조들의 다양한 삶을 만나게 된다. 저자 풍속화를 저술한 윤진영 교수는 한국화화사를 전공하고 현재 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 한국 민화학회 총무이사,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의 책임연구원이다. 풍속화는 과거의 생활 습속이나 삶의 현장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여주는 그림이다. 다양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살피는데 더 없이 좋은 자료다. 문자 기록으로 대신할 수 없는 실존의 모습들은 그림을 통해 후대에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 소개된 관인 사인 풍속화는 임금을 비롯한 조선사회 관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과 함께 자세하게 전해준다. 또한 선비와 양반사회의 운치 있는 삶과 오늘 날까지도 전해지는 우리사회의 생활 풍속의 유래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풍속화에는 해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서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조선 풍속화의 전형을 이룬 서민 풍속화에는 조선사회를 살아간 선조들의 다양한 삶이 담겨있다.



❖ 고양이 눈으로 산책

아사오 하루밍 지음, 이수미 옮김 / 북노마드 / 224p / 1만 2천 원

1년 동안 매일 오후 3시에 있었던 일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여 자신의 성실함과 귀여움을 뽐낸 바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아사오 하루밍의 산책 일기. 혼자, 혹은 자신의 고양이와, 지인들과 함께 돌아 다닌 도쿄 이야기를 담았다. 산책을 기록하는 아사오 하루밍은 물론 고양이가 아니지만, ‘내 안의 고양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양이들의 동선을 주의 깊게 따라가며 그야말로 ‘고양이 눈으로 산책’을 떠난다. 또다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내 안의 고양이’는 저자의 속에 들어앉아 미주알고주알 참견하기도, 훗 외출하기도 한다. 고양이를 보기 위해 일부러 길을 나서는 순간에도, 길에서 우연히 고양이를 마주치는 순간에도, 저자는 도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환상에 빠져든다. 저자가 묘사하는 도시가 실제의 도쿄와 어느 정도 닮아 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그러면서도 무척 생생하고, 가끔은 아주 진솔하다. 그리고 엉뚱하다. 목적지로 향하는 댄 발걸음이라기보다 정처 없고 두서없는 산책인 셈이다. 어쩌면 길을 잃게 하려는 걸지도 모르겠다. 길을 잃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고양이는 늘 약간씩은 잘못으니까. 시뻘시뻘, 살금살금 고양이의 시선으로 도쿄를 산책해 보자.



❖ 베버 '마탄의 사수 미사', 하이든 '미사 산타 체칠리아'

호르스트 슈타인&밤베르크 심포니

라파엘 쿠벨릭&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루치아 폼(sop) / 쿠르트 몰(bass) 외

▶ 라파엘 쿠벨릭과 호르스트 슈타인의 전성기 활약상을 담은 소중한 영상기록 두 편

바이에른 방송국(BR)에서 보관하고 있던 소중한 영상기록 두 편이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당대를 대표했던 바그너 스페셜리스트이자, 1985년부터 11년 동안 밤베르크 심포니를 이끌었던 독일의 거장 호르스트 슈타인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비약적인 발전에 큰 공헌을 했던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거장 라파엘 쿠벨릭의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슈타인과 밤베르크 심포니는 1986년 바이에른 주의 북동쪽 끝에 위치한 거대한 바로크 양식의 수도원인 바실리카 발트자센에서 가졌던 특별한 콘서트에서 베버가 1818년 작센의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를 위해 완성했던 이른바 '마탄의 사수 미사'라고 불리는 미사 1번을 연주하였다. 그보다 앞서 1982년 바이에른 남서쪽 끝단에 위치한 바실리카 오펜보이렌에서 있었던 콘서트에서는 쿠벨릭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이 파파 하이든의 대표 미사곡 중 하나인 '산타 체칠리아 미사'를 연주하였다. 루치아 폼, 쿠르트 몰, 마르가 쉬틀, 요제프 프로차카와 같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가수들의 모습도 이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비르투오조 바이올리니스트 '코간, 오클레르, 그뤼미오

코간 베토벤/바이올린 협주곡, 바흐/사라방드

오클레르 바르톡/랩소디 1번, 루마니아 민속 무곡, 생상/바이올린 협주곡 3번

그뤼미오 브람스/바이올린 협주곡

▶ 시대를 초월한 비르투오조 바이올리니스트 코간, 오클레르, 그뤼미오의 최초 공개 레코딩

미셸 오클레르 연주 활동 마지막 녹음인 바르톡과 생상 협주곡, 레오니드 코간의 베토벤 협주곡, 그리고 그뤼미오의 브람스 협주곡 녹음이 프랑스 국립 시청각 연구소 음원으로 최초 음반화 되었다. 코간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1977년, 파리 메종 드 라 라디오 실황 녹음이다. 전설의 명연으로 평가받는 1959년 실베스트리 녹음(EMI)에 비견되는, 극도로 부드럽고 차분하며, 세련된 연주로, 곳곳에 강렬한 카리스마가 빛나고 있다. 앙코르곡도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연주로, 코간이 콘서트에서 자주 연주했던, 바흐의 무반주 파르티타 1004번 중에서 사라방드이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다친 왼손 때문에 1970년 6월 27일 무대를 끝으로 은퇴한 오클레르의 마지막 방송 세션녹음과 마지막 콘서트 실황 녹음으로, 그녀의 장기이지만 정규 레코딩에는 존재하지 않던 바르톡 랩소디 1번과 루마니아 민속 무곡, 그리고 생상의 협주곡 3번이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불타오르는 현란하고 찬란한 음색과 무시무시한 집중력, 그리고 생생한 서정미로 가득찬 그녀의 바이올린은 프랑코-벨기에 악파의 꽃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열연이다. 마지막으로 수록된 그뤼미오의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은 1969년 3월, 프랑스 국립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으로, 그뤼미오 장기인 종달새의 지저귐처럼 청명하고 매력적인 바이올린 연주가 특징이다.



❖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협주곡 2번,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빅토리아 물로바(바이올린)/파보 예르비(지휘)/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 바이올리니스트 빅토리아 물로바가 오랜만에 음악적 뿌리인 러시아 음악으로 돌아오다

2012년~2014년에 걸쳐 실황으로 녹음된 새 음반은 모두 프로코피예프 작품으로 꾸며지며, 특히 파보 예르비-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과 함께 만든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물로바는 가슴을 두드리는 서정미와 신랄한 풍자가 교차하는 이 협주곡의 핵심을 잘 짚어냈으며, 특유의 강렬한 음색도 여전히 인상적이다. 테디 파파브라미가 2바이올린을 맡은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그리고 작곡가 최만년의 걸작인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역시 물로바다운 빼어난 연주다.



NEWS

❖ 부산문화회관, 부산예술중학교와 협약체결



예술 꿈나무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환경 제공

부산문화회관이 예술계 특성화중학교인 부산예술중학교(교장 김창우)와 지난 7월 1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청소년들의 예술교육 협력에 뜻을 같이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예술계 특성화중학교인 부산예술중학교의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과의 긴밀한 문화예술 제휴를 통해 미래 음악도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부산문화회관을 산 교육장으로 제공, 부산문화회관 시설과 부산시립예술단을 통한 차별화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앞으로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의 우수한 콘텐츠를 활용,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 문화예술 장르 정보 제공으로 미래 잠재고객 발굴에 기여할 계획이다.

❖ 2016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객 선호도 조사

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16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계획 수립을 앞두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관객 선호도 조사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를 통해 진행되며 관람횟수, 개인별 선호 장르, 보고 싶은 공연 장르, 입장권 구매방법, 개선사항 등 총 9개 문항으로 나눠 의견을 수렴한다.

부산문화회관은 이번 관객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내년 기획공연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가족이 함께 하는 토요일 문화나들이



2015 한국문화재단 연합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부산문화회관 토요일가족나들이 '얼씨구락' 상반기 수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연합회, 부산문화회관이 주관하는 국비사업 2015년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토요일가족나들이 '얼씨구락' 상반기 교육이 종료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토요일가족나들이 '얼씨구락'은 온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국악체험 프로그램으로 부산문화회관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기획, 참가 가족, 친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지난 3월 7일 가족이 함께 장구를 직접 조립하는 1회차 교육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가족 사물놀이강습,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 관람, 소금 강습 등 15주간의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다양한 국악기 체험을 위해 흥겨운 사물놀이 수업에 이어 가야금의 고장 고령을 방문, 우리의 대표 현악기인 가야금의 역사를 담은 우륵박물관 탐방과 가야금 연주체험, 가야금 만들기 등으로 참가 가족들이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하반기 교육은 7월 27일부터 접수를 시작, 8월 8일부터 1회차 수업이 시작된다.

2015년 제28회 부산합창제 참가단체 모집

부산시립합창단에서는 2015년 제28회 부산합창제에 참가할
부산지역 내의 합창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연 개요

| 공연 명 | 제28회 부산합창제

| 공연일시 및 장소 | 10월 1일(목)~2일(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모집 개요

부산지역 연고의 합창 단체(혼성, 남성, 여성) 20개 단체 내외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8월 3일(월)~12일(수) 17:00까지(토, 일 제외)

| 접수 처 |

- 1) 전자메일 busanartoffice@naver.com)*첨부 파일
- 2) 방문 및 우편(*마감일 17:00 도착 기준)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부산문화회관 내 시립예술단 사무국

| 제출자료 |

신청서(소정양식), 단원 명단, 연주곡목 및 악보(공연 10분 이내), 주요 공연
내역(필요 시), 단체 연혁(10줄 이내 단문형) 및 사진

●● 선정 방법

| 심의일자 | 8월 13일(목)

| 선정기준 | 창단 기간, 단원 수, 연주 횟수, 곡목 수준, 준비정도 등을 근거로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단, 총점 6점 이상 취득 단체에 한함)

| 참가단체 통보 | 2015년 8월 14일(금)(*선정 단체만 개별 통지 및 부산문
화회관 홈페이지 게시)

●● 기타 사항

- 선정된 단체는 사전 모임(8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 예정)에 반드시 참석바랍니다.
- 공연 시, 개별 단체 연주곡목 외 다함께 연합합창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 참여의 적극성과 열의는 다음 년도 단체 선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051-607-3142)



9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가 달라집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합창단·무용단·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를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공연 할인 제도 시행에 따라 청소년 회원 폐지,
1인 관람객을 위한 그린회원 신설, 단체가입 혜택 대폭조정

구 분	회 비	할인매수
골드회원	50,000원	4매
블루회원	30,000원	2매
그린회원(신설)	20,000원	1매

* 단체가입할인 : 20명이상(10%), 30명이상(20%), 50명이상(30%)

| 회원가입 |

- 가입신청 : 전화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 무통장입금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부산문화회관)
 - ※ 홈페이지 가입 : 인터넷(무료)회원 등록 후 마이페이지에서 정기회원 전환
유료결제
- 방문신청 : 부산문화회관 관리동2층 예술단사무국 홍보팀
(가입신청서작성, 회비납부)

| 관람권 예매 |

- 예매 : 전화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무통장입금 : 부산은행 036-01-034848-7(예금주/부산문화회관)
- 수령 : 정기회원 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

| 회원혜택 |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증 발급 우송(7일)
- 부산시내 공연장 정보를 담은 월간지(예술예의 초대) 우송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5~30%)
-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 관람료 할인(10~30%)

- 예매 및 현장(당일) 관람권 구입시 할인(정기회원카드 제시), 입석 할인불가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단체공연 입장료 할인(주최측과 협의된 공연)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아카데미수강료 할인(문화강좌, 시민예능교실 등)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가 있는 여행

| 할인쿠폰발행 |

- 할인쿠폰발행(SKY하늘안과, 공간소극장, 모차르트, BS부산은행 조은극장, 토다이(센텀점), 필하모니, 하나돈가스(센텀점), 새날한의원(광안점/해운대점), 메가박스(서면점), 안경나라(동래점)
 - ※ 업체사정으로 변경 가능

| 주의사항 |

- 입장권 예매취소는 공연하루 전 16:00까지 가능(당일 취소 불가)
- 입장권 예약하고 3일 이내 미입금 시 예매취소
 - ※ 정기회원(유료)가입 5일 이후 취소 불가

| 가입문의 |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051-607-3100, FAX 051-607-3109
- 평일 09:00~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

2015 부산문화회관 음악영재 아카데미

우수한 공연시설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1:1 개인레슨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음악영재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안내

- 모집부문 : 기악전공 -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 지원자격 : 초등학교 1학년~초등학교 6학년(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클라리넷, 예술중학교 재학생 제외)
- 모집정원 : 20~30명(각 분야별 참가자 오디션 수준에 따라 변경가능)

오디션 세부일정

- 접수기간 : 2015년 8월 10일(월)~14일(금)
- 접수방법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오디션 : 2015년 8월 18일(화) 14:00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내용 : 자유곡 1곡 연주 (*반주자 필요시 동반)

학기 및 학습방법

- 학사일정 : 2015년 9월~12월(하반기), 총 12회
- 학습방법 : 1:1 개인레슨
- 수 강 료 : 60만원(12회)
※ 오디션 결과에 따라 10~12회로 강습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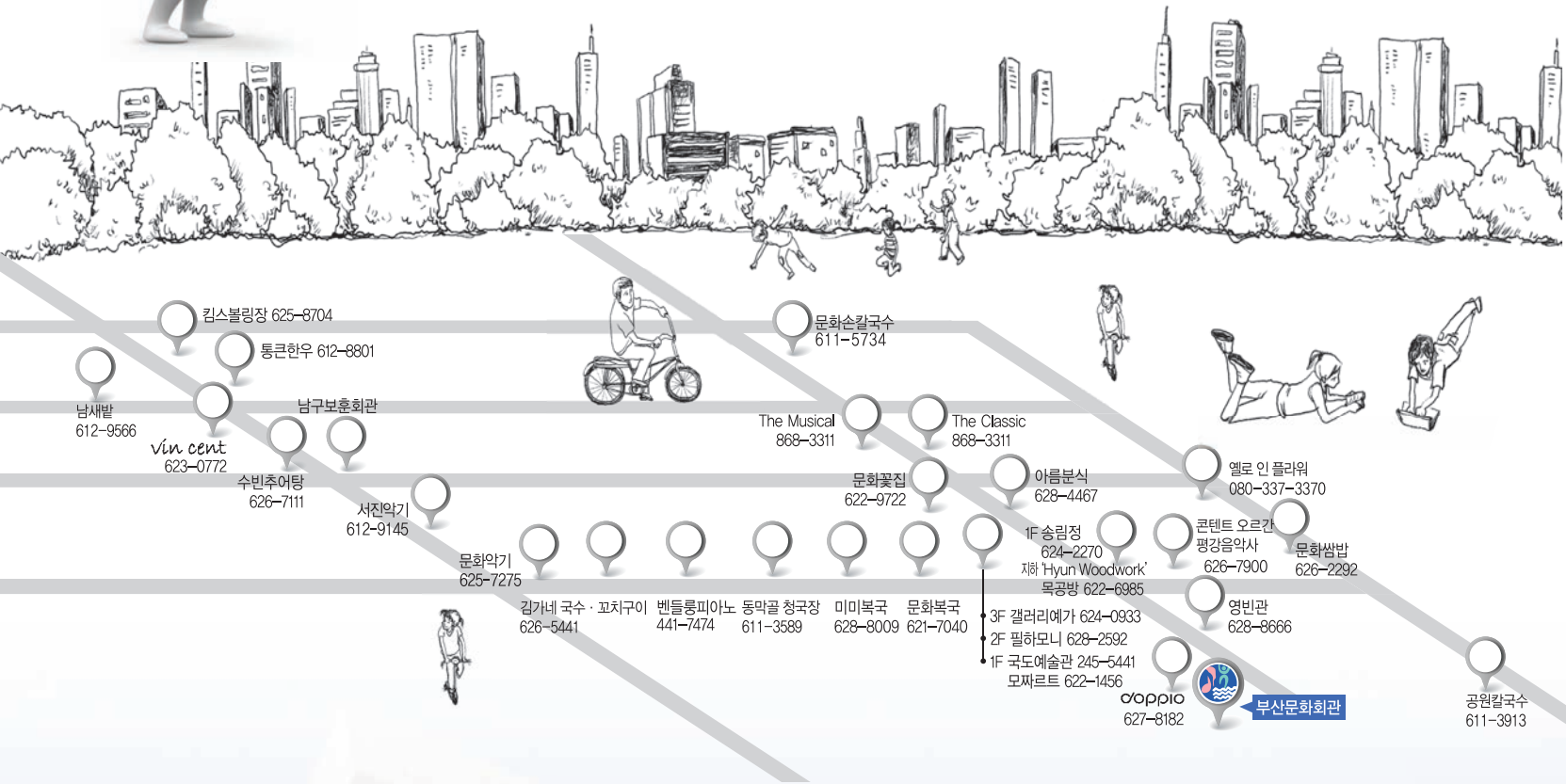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 마스터클래스 : 국내외 유명 연주자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향상(평가)음악회 : 한 학기 동안의 강습을 통해 향상되고 있는 학생들의 연주 실력을 선보이는 음악회로 매 학기말 개최
- 음악영재콘서트 : 수강생들 중 연주 실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여 매년 1회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콘서트 개최

※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참조



공연시간에 쫓겨 힘든 것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1층 Tel. 051)622-1456</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커피 10%할인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p>
<p>Since 1981 philharmony 필하모니</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Tel. 051)626-2592</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식사 5%할인 Tel. 051-624-227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평일 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조조, 심야, 3D 제외)</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옐로인 플라워 꽃 상품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입구 본점 080-337-3370 대연혁신점 627-1253</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디럭스 객실 정상가 300,000원 → 할인가 99,000원 (세금포함/조식불포함/성수기 기간 제외) 예약문의 : 051)678-100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752-9811(광안), 051-747-9812(해운대)</p>
 <p>부산문화회관 & 굿월치과병원 협약기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덕천 330,6000 하단 209,6015 서면 606,600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850-050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929-500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819-0173</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상품 20%할인 (일부품목제외) 안경나라(동래점) 051)505-8987</p>	



한여름밤의 한음악회

2015. 8. 11(화)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 차이코프스키 '에프게니 오네긴' 中 폴로네이즈
-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
- 슈트라우스 황제 왈츠
- 최영섭 그리운 금강산
- 레하르 '오페레타 주디타' 中 너무나도 뜨겁게 키스하는 내 입술
- 시벨리우스 슬픈왈츠
- 하차투리안 '가면무도회' 中 왈츠
-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 中 Final 왈츠



지휘 이동신



피아노 오현정



소프라노 배수진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MBC

후원 수장건설 삼성중공업 안제대학교부산캠퍼스

예매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문의 010-3863-3087

합장권 균일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팔비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지휘 김철호

2015. 8. 12(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가수 박강성



태평소 진형준

지휘

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협연

박강성(대중가수)

진형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성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정선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송강수(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최오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이주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재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노래 박성희



소리 정선희

프로그램

국악관현악 [거울나라] / 작곡: 이경섭

태평소와 국악관현악 [Over The Rainbow, The Children of Sanchez] / 편곡: 이준호

창작 판소리 [홍부가 중 박타령] / 작곡: 이경섭

박강성과 함께 하는 대중가요 / 편곡: 백규진

경기도당굿 장단에 의한 타악협주곡 [불꽃] / 작곡: 이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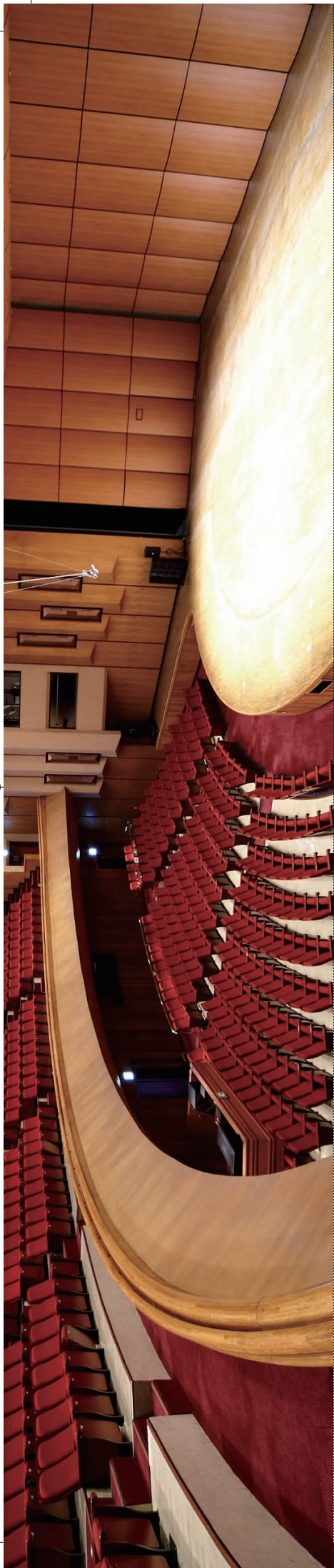


장 송강수, 장구 최오성, 평과리 이주현, 제금 박재현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R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문의 부산시립예술단사무국 홍보팀 051-607-3105 운영팀 051-607-3143

서해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 ~ 금 19:00(공연 있는 날에 한함)



20% Discount

센텀점 토다이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모차르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까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Since 1981 필하모니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엘로인플라워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Discount

연극 '몽타주'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인 2개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일 한정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며 할인됩니다.
• 타점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극적인 하룻밤'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인 2개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일 한정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며 할인됩니다.
• 타점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작업의 정석'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인 2개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일 한정에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타점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11.~
남부산우체국송인
제265호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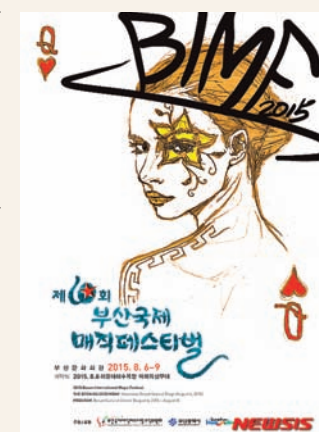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8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CULTURAL SCHEDULE

부산문화회관 8월 공연일정

2015 August 8

1	16:00 제3회 BNK금융그룹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연주회 대극장 초대/BNK금융그룹(661-4821) 13:00 한국청소년심리학회 제6회 토크콘서트 소극장 무료/한국청소년심리학회(010-5209-3010)
2	11:00 창작 가족뮤지컬 '엄마 아빠, 형제는 많을수록 좋아요' 중극장 무료/까리프로젝트(988-7721)
3	11:00 창작 가족뮤지컬 '엄마 아빠, 형제는 많을수록 좋아요' 중극장 무료/까리프로젝트(988-7721)
4	19:30 2015 브니엘 무용 발표회 대극장 무료/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 무용부(581-8651) 1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피아니스트 박종화 '건반 위의 이야기' 소극장 균일 2만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2~4)
6	13:0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국제마술대회 본선' 대극장 15:0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세계마술 도구 시연' 소극장 BIMF 조직위원회(626-7002)
7	13:0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국제마술대회 본선' 대극장 19:3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나이트 매직 갈라쇼' 대극장 10:3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글로벌 키즈 매직쇼' 중극장 16:3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차일드/실버 마술대회' 중극장 09:1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명인лек처' 소극장 15:0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피즘 그랑프리 워너쇼&노히우' 소극장 BIMF 조직위원회(626-7002)
8	13:0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국제마술대회 본선' 대극장 19:3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나이트 매직 갈라쇼' 대극장 10:3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글로벌 키즈 매직쇼' 중극장 15:0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스페셜쇼-팀플레이 매직쇼' 중극장 17:3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매직드라마 화우' 중극장 09:1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명인лек처' 소극장 15:0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2015 세계전통마술 프로젝트-중국' 소극장 17:0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원맨쇼' 소극장 BIMF 조직위원회(626-7002)
9	13:0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국제마술대회 결선, 시상식' 대극장 19:3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나이트 매직 갈라쇼' 대극장 10:3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글로벌 키즈 매직쇼' 중극장 15:0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스페셜쇼-팀플레이 매직쇼' 중극장 17:3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매직드라마 화우' 중극장 09:1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명인лек처' 소극장 15:0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2015 세계전통마술 프로젝트-중국' 소극장 17:00 제1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원맨쇼' 소극장 BIMF 조직위원회(626-7002)
10	19:30 제13회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대극장 무료/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010-8140-4555)
11	19:3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UKO 한여름밤의 음악회' 대극장 균일 2만원/UKO(010-3863-3087) 19:3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인촌의 오페라 스토리' 중극장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



연극 '작업의 정석'
7월 30일(목)~10월 2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2만원
장 소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스티플
문의 및 예매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극 '극적인 여름밤'
6월 25일(목)~8월 3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 소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극 '용타자'
7월 9일(목)~9월 13일(일) 오후 5:00, 8:00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2만원
장 소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엘로인플라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꽃 상품 10% 할인
(일부상품 제외)
부산문화회관 inquiry 080-337-3370
대연동점 051627-1293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벽담 2층
051626-2592

하단온카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식사 제외)
센텀SI-벨리 210호
051747-8244

모자놀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벽담 1층
051622-1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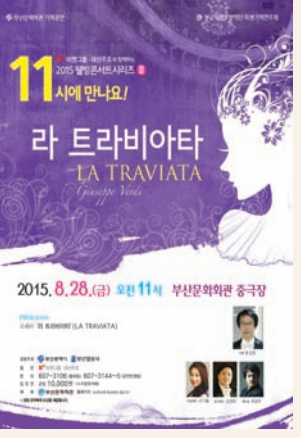
토다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명일 점심 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인퍼니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CULTURAL SCHEDULE

부산문화회관 8월 공연일정

2015 August 8

12	19: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대극장 2만원 ·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5, 3143)
13	19:3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2015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대극장 무료/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7, 3108)
	19:30	제1170회 MBC목요일음악회 '부산콘서트라이더와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중극장 1만원 · 5천원/부산콘서트라이더(010-5555-3825)
	10:10 11:10	키즈샌&프렌즈 가족뮤지컬 '개미와 베짚이' 소극장 균일 5천원/키즈샌&프렌즈(02-6203-6593)
15	19:00	부산대학교 의 · 치대 관현악단 제43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초대/부산대학교 의 · 치대 관현악단(010-6758-2875)
19	10:00	가페라 가수 이한 교수와 함께하는 드림콘서트 중극장 무료/(주)교원구문(627-4726)
20	19:00	CTS TV와 함께하는 제2회 김홍보 알마힐 가스펠 콘서트 소극장 초대/김홍보(010-7740-9296)
21	11:00 16: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중극장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
22	10:00	제33회 전국공모 KBS부산 무용공쿠르 예선 중극장 KBS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620-7327)
	16:00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극장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23	10:00	제33회 전국공모 KBS부산 무용공쿠르 예선 중극장 KBS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620-7327)
	16:00	2015 여름음악페스티벌 소극장 무료/민소연(010-2802-2883)
24	20:00	Son young il dance stage NO.2 '기억의 향' 중극장 손영일(010-3581-2156)
25	19:30	(사)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초청 소프라노 정혜민 독창회 중극장 초대/우리아트(920-9545)
26	19:30	피아니스트 백민정 초청 독주회 중극장 균일 2만원/이든예술기획(02-6412-3053)
27	19:30	이정화와 춤추는 사람들 '굿맛이 춤' 소극장 이정화(010-4554-3260)
28	11:0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5 월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Ⅲ - 라 트라비아타' 중극장 균일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4~5, 3100)
	10:10 11:10	키즈샌&프렌즈 가족뮤지컬 '개미와 베짚이' 소극장 균일 5천원/키즈샌&프렌즈(02-6203-6593)
	16:00	토요상설무대-스트로크 타악기 앙상블 소극장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30	17:00	제20회 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중극장 무료/조익진(010-9875-0700)
	16:00	2015 여름음악페스티벌 소극장 무료/민소연(010-2802-2883)
31	19:30	김문주, 김진희 피아노 듀오연주회 중극장 초대/김진희(010-9928-3733)



9월 테마여행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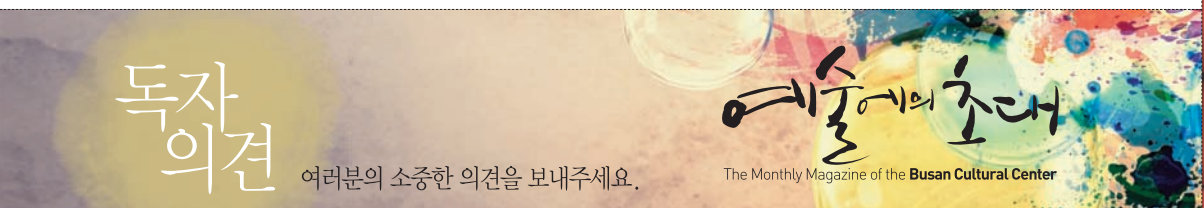
테마여행지 추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11~
남부산우체국송인
제265호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개선해야 할 점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 ^{B⁷⁰}비엔그룹·대선주조와 함께하는
2015 웰빙콘서트시리즈 Ⅲ
시에 만나요!

라 트라비아타

LA TRAVIATA

Giuseppe Verdi



2015. 8.28.(금)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PROGRAM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LA TRAVIATA)



지휘 윤상운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협찬 ^{B⁷⁰}비엔그룹·대선주조

문의 607-3106 (홍보팀), 607-3144~5 (공연운영팀)

입장권 균일 10,000원 (*지정좌석제)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 당일 관객에게 도넛을 제공합니다.



비올레타 손가솔



알프레도 김경여



제르몽 최상무